



특집

# 2030부산월드엑스포, 세계 일류도시 향한 부산의 도전

- 08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전 본격화\_ 조유장
- 16 개최 최적지 부산의 매력과 엑스포 비전\_ 김해창
- 32 역대 등록엑스포 주제와 부산 엑스포 주제 방향\_ 김이태
- 42 교통인프라와 엑스포 유치 경쟁력 강화 방안\_ 신용은
- 5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 성공 전략과 과제\_ 오성근

# 01 |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전 본격화



대한민국과 부산의  
미래성장동력 확보 위해

국민 소망 담아  
유치 성공에 총력 기울여야

\_ 조유장 부산시 관광마이스산업국장



가보지 않은 길,  
위대한 도전  
'2030부산  
월드엑스포'

2014년 부산시가 엑스포 유치를 선언한 이후, 2019년 5월 국가 사업이 확정되었고, 2년만인 지난해 12월 1일 국제박람회기구(BIE)<sup>1)</sup>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유치의향을 표명해 올해 유치신청을 하게 되면서 본격 유치 경쟁이 펼쳐지게 된다.

부산이 2030월드엑스포 유치에 성공하면 대한민국 최초로 월드엑스포를 개최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두 차례의 전문엑스포를 개

## 2030부산월드엑스포 개최개요

- 기간, 장소 : 2030년 5~10월(6개월), 북항 일원 266만㎡
- 참가 규모 : 200여 개국, 5,050만 명 추산
- 총사업비 : 4조 8,995억 원 \*국비(총사업비 30% 이내)
- 파급효과 : (생산) 43조 원, (부가가치) 18조 원, (고용) 50만 명

### <국제행사 파급효과 비교>

올림픽(2018 평창)	월드컵(2002)	엑스포(2015 밀라노)	엑스포(2030 부산)
16일/138만 명/29조 원	30일/300만 명/17조 원	6개월/2,200만 명/63조 원	6개월/5,050만 명/61조 원

자료: KDI, KEI

1) 국제박람회기구(BIE): 1928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엑스포 개최국을 결정하고 개최국과 참가국 간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는 등 엑스포를 관장하는 기구(본부: 프랑스 파리, 회원국 169개국).

최(1993년 대전, 2012년 여수)한 바 있으나, 등록엑스포인 월드엑스포를 개최한 적은 없으며, 1893년 시카고 엑스포 첫 참가 이후 137년 만에 첫 개최 도전이다.

엑스포는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 메가 이벤트로, 인류가 이룩한 업적 또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전시하고,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대안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경제문화 올림픽이다. 국제박람회기구(BIE)가 공인하는 엑스포 주제와 전시면적의 제한 여부, 개최 기간 등을 기준으로 등록엑스포(월드엑스포)와 인정(전문)엑스포로 구분되는데, 등록엑스포(이하 월드엑스포)는 개최 기간이 6개월로 인정(전문)엑스포보다 2배가량 길며, 인정(전문)엑스포(최대 25ha)와 달리 전시 면적에 제한이 없다. 특히, 월드엑스포는 참가국이 자비로 자국관을 설계·건설해 경제적 효과가 훨씬 크다.

[표 1 - 등록엑스포와 인정엑스포]

구분	등록엑스포(Registered Expo)	인정엑스포(Recognized Expo)
주제	광범위한 주제	명확한 특정 주제
기간	6개월	3개월
주기	5년	등록엑스포 사이
전시면적	제한 없음	25ha(75천 평) 미만
비용분담	개최국은 부지만 제공하고 참가국이 자국 경비로 국가관 건설	개최국이 국가관을 건설하고 참가국에게 무료 임대
사례	일본 오사카(1970) 독일 하노버(2000) 일본 아이치현(2005) 중국 상하이(2010) 이탈리아 밀라노(2015) UAE 두바이(2020)	일본 아이치현(2005) 스페인 사라고사(2008) 한국 여수(2012) 카자흐스탄 이스타나(2017)

2030부산월드엑스포는 글로벌 해양도시 부산을 전 세계에 알리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경제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메가 이벤트로 시민들의 오래된 숙원이며 꿈이다.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에 성공한다면,  
지역 기업 브랜드의 세계화와  
지역 기반 국가경제 성장축을  
형성하여 우리나라의  
미래 경제지도를 바꿀  
글로벌 메가 이벤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이 2030월드엑스포 유치에 성공한다면, 6개월의 행사기간 동안 5천만 명 이상의 국내외 관람객이 부산을 찾고 무려 61조에 이르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역 차원에서 보면 지역 기업 브랜드의 세계화와 지역 기반 국가경제 성장축을 형성하여 우리나라의 미래 경제지도를 바꿀 글로벌 메가 이벤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지역 기반 건설, 물류, 관광 마이스, 도·소매업 등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 글로벌기업 유치 및 창업 생태계 혁신 등 지역 산업구조가 재창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 - 역대 엑스포 경제적 파급효과]

구분	2010 상하이	2015 밀라노	2020 두바이(추정)	2030 부산(추정)
참가국 (관람인원)	192개국 (7,300만 명)	145개국 (2,200만 명)	200여 개국 (2,500만 명)	200여 개국 (5,050만 명)
투자액	5조 2천억 원	4조 3천억 원	6조 9천억 원	4조 9천억 원
경제효과	110조 원 (관광수입 52.7조 원)	63조 원	생산유발 38조 원	생산유발 43조 원 부가가치유발 18조 원
고용창출	63만 명	24만 명	28만 명	50만 명

2030부산월드엑스포는 부산에서 만나는 인류 최첨단기술 체험과 미래 성장일자리확보를 통해 부·울·경을 아우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축으로의 성장 계기를 마련해 부산 미래발전을 50년 이상 앞당길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이다.

중국은 2010년 상하이 엑스포를 통해 경제 강국으로 부상했으며, 일본은 2025년 오사카 엑스포 개최를 통해 국가경제 재부흥을 모색하고 있다.

부산이 2030년에 엑스포를 개최하면 올림픽, 월드컵, 엑스포 등 세계 3대 이벤트를 모두 개최하는 7번째 국가가 된다. 지금까지 3대 행사를 모두 개최한 나라는 프랑스,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가 전부다.

### 350만 시민 열망으로 본격 유치 준비 돌입

2030월드엑스포 부산 유치계획은 2014년 7월 부산시가 엑스포 유치를 선언하고, 2019년 5월 국가사업으로 확정되면서 같은 해 11월 범정부 유치기획단 출범과 함께 국가 차원에서 본격 유치 추진체제가 가동되었다. 유치기획단은 범정부 차원에서 월드엑스포 유치에 필요한 마스터플랜, 유치전략 수립 등 사전 준비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할하는 유치 전담조직이다.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단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외교부까지 주요 중앙부처가 포함돼 유치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올해 유치신청을 시작으로 2022년 최종 유치계획서(Bid Dossier) 제출, 2023년 BIE 현지실사를 통해 2023년 총회에서 169개 회원국 투표를 통해 개최 도시가 확정된다.

#### 유치 로드맵

국가사업 확정('19.5.) → 범정부 유치기획단 출범('19.11.) → 마스터플랜 수립('20.6.~'21.12.)  
→ 중앙유치위원회 구성('21.상) → 신청서 BIE 제출('21.) → 최종 계획서 제출('22.상) →  
BIE 현지실사('23.상) → 개최지 결정('23.11.)

부산시는 2015년 7월 시민단체, 유관기관, 정치계 등으로 구성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 대정부 건의문 채택, 시민결의대회 등 엑스포 유치 정부 승인을 위해 지역 차원의 유치 공감대 형성 및 유치 붐 조성에 앞장서 왔다. 작년 법인설립과 함께 지정 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 유치위원회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적극적인 유치 활동도 가능하게 되었다. 앞으로 범시민유치위원회는 350만 부산시민의 유치 염원을 재결집하고 더 나아가 800만 부·울·경의 유치 열기를 모아서 전국으로 유치 열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 정부 주도로 설립하게 될 민간 중앙유치위원회와 공동으로 전략적 교섭 및 범국민적 관심 제고와 지지 동참을 이끌어 전국으로 유치 열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범정부 유치기획단(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은 2020년 6월 착수, 2021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경쟁 국가들과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유치전략을 마련하여 2022년 국제박람회기구(BIE)에 유치계획서(Bid Dossier)를 제출할 계획이다.

주제개발, 박람회장 조성계획(마스터플랜), 전시연출계획, 커뮤니케이션계획, 사후활용계획, 광역교통 및 숙박계획, 관람객 수요 추정 및 재정계획 등 전 분야에 걸쳐 BIE에서 요구하는 박람회 세부 기준에 부합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지역 전문가도 용역과정에 참여해 부산만의 강점을 살리고 시대를 선도하는 경쟁력과 차별화된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 (사)2030부산월드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

- 설립 : '15.7.31.(비법인 임의단체) → '20.6.15.(법인전환)
- 형태 : 비영리 사단법인 ※기부금지정단체 등록('20.9.)
- 조직구성 : 이사회, 명예위원장, 고문단, 집행위원회, 분야별 전문가그룹 등
- 사업내용 : 범시민 유치 공감대 형성 및 민간 중심의 엑스포 유치 활동 지원



#### 범국민 염원을 담아 해외유치 경쟁 본격화



지난해 12월 1일 제167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우리 정부가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함에 따라 엑스포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국제 경쟁이 시작되었다. 이날 총회에서는 부산 외에 러시아 모스크바도 공식 유치 의사를 밝혀 앞으로 치열한 유치 경쟁이 예상된다. 이날 총회에서 우리 정부 대표는 “부산의 제조업이 한국 전쟁의 폐허를 딛고 눈부신 경제성장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부산은 K-Pop과 영화, 게임 등 문화콘텐츠를 비롯해 다양한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도시여서 한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여주는 2030월드엑스포 유치에 최적지”라며 2030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는 정부와 협력으로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글로벌 인사를 영입하여 ‘중앙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추진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중앙유치위원회’는 재계, 외교계, 문화계 등 각 분야를 망라한 주요인사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유치 활동을 주도해 나갈 예정이며, 국제박람회기구(BIE) 169개 회원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해외교섭활동의 주체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부산시와 정부가 유치 전반을 이끌어왔다면 앞으로는 민간 특히, 기업의 참여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역대 엑스포 개최 사례를 보면 제너럴 모터스, IBM, 월트디즈니, 코카콜라, 루이뷔통 등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엑스포(박람회)가 있었으며, 엑스포에 참가하고 후원하면서 엑스포와 함께 세계 일류기업으로 성장했다. 2025년 오사카 엑스포 사례를 보면 공식파트너와 스폰서만 190여 개 기업이 참가했고, 지역경제 단체연합과 함께 발로 뛰어 유치에 성공할 수 있었다.



부산시와 정부,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상공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BIE 회원국 대상 해외교섭 활동  
및 득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는 유치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신청서 제출 이후에는 부산시와 정부, 대한상공회의소, 부산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상공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BIE 회원국 대상 해외교섭 활동 및 득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 ‘정부유치지원위원회’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국회유치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동시에 광역단위 유치 지지 우호세력 확보를 위해 부·울·경이 함께 협력하여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다.

엑스포가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들의 투표로 개최 도시가 결정되는 만큼 월드엑스포 개최 최적지로서의 매력을 알리고 회원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부 차원의 다각적·전방위적 대외 홍보활동과 민간 중심의 해외교섭활동을 통해 부산이 개최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외교부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유치 의사를 표명한 러시아를 포함하여 향후 유치전에 뛰어들 경쟁 예상국들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 해외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해외 관계자 초청행사, 국제컨퍼런스 등의 전략적 유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성공적 유치를 위한 국가 역량 총동원

부산은 월드엑스포 유치를 통해 경제·사회·문화 전반의 발전과 도시 브랜드 홍보에 일대 혁신을 기할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 6세대 통신, 스마트 항만 등 4차 산업혁명의 선도도시로서 부산을 전 세계에 각인할 절호의 기회이며, 코로나 이후 새롭게 구축되는 세계 질서 속에서 K방역, 한류 등 소프트 파워도 세계에 표준을 제시하여 대한민국이 세계 리더 국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월드엑스포는 단순박람회가 아니라 국가 총역량을 보여주는 쇼룸이기에 부산 엑스포 유치는 국가적으로는 나라 위상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다.

부산은 풍부한 국제행사 개최 경험, 탁월한 글로벌 전시 역량, 매력적인 국제관광도시로서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국가보다 오랜 기간을 통해 엑스포 개최를 위한 준비된 도시이다. 특히, 북항재개발 연계 개최로 국제박람회기구(BIE) 가치에 부합하는 환경훼손 없는 도심재생을 통한 지역개발과 연계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진 도시로, 한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여주는 2030월드엑스포 유치에 최적지이다.

올해는 특히 공식 유치 신청으로 본격 유치 경쟁에 돌입하게 되는 중요한 해인만큼 대한민국과 부산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국민들의 한결같은 열정과 간절한 소망을 담아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 02 | 개최 최적지 부산의 매력과 엑스포 비전



입지의 우위성과 탁월한 교통인프라

### 월드엑스포 개최 최적지 부산의 강점

— 김해창 경성대 건설환경도시공학부 교수  
seablue5@hanmail.net



#### 2030월드엑스포가 갖는 의미

2030년 부산에서 월드엑스포(세계박람회)가 열린다고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88서울올림픽을 개최했을 때의 흥분과 기대가 새롭게 인다. 2030월드엑스포는 세계박람회로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세계 3대축제이다. 월드엑스포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월드컵, 올림픽을 훨씬 능가한다. 월드컵은 1개월간 개최, 관람객 300만 명, 경제효과 11조 4,700억 원(KDI) 정도이고, 올림픽이 16일간 개최, 관람객 300만 명, 경제효과 12조 원 정도인데 비해 월드엑스포의 경우 6개월간 개최, 관람객 2,200만 명 이상, 경제효과 50조 원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30월드엑스포는 우리가 그동안 접해본 대전엑스포, 여수엑스포와는 결을 달리한다. 월드엑스포는 BIE(국제박람회기구·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가 공인하는 엑스포로 국가가 개최하고 국가가 참여하는 유일한 국제이벤트라 할 수 있다. 엑스포는 BIE의 공인 여부에 따라 공인엑스포와 비공인 엑스포로 나뉘는데 처음에는 종합엑스포와 전문

엑스포로 구분되었다가, 1998년 리스본엑스포 이후 공인엑스포는 인정엑스포(Recognized Exposition)와 등록엑스포(Registered Exposition)으로 구분된다. 1993년 대전 과학엑스포는 전문엑스포, 2012년 여수 해양엑스포는 인정엑스포로 모두 등록엑스포는 아니었다.



엑스포는  
다양한 시각과 감각적인  
경험을 결합해  
참가자와 관람객 모두에게  
남는 경험을 선사하는  
일시적인 소유주이다



도대체 엑스포란 무엇인가? BIE 홈페이지는 엑스포를 몰입적인 활동을 통해 선택된 테마 내에서의 여정을 제공함으로써 인류가 직면한 근본적인 도전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 전념하는 글로벌 행사로 규정하고 있다. 엑스포는 ‘진보와 협력을 위한 국제 대화의 플랫폼’으로 인류의 의제가 엑스포의 주제를 통해 나타난다. 엑스포는 다양한 시각과 감각적인 경험을 결합해 참가자와 관람객 모두에게 기억에 남는 경험을 선사하는 일시적인 소유주이다. 엑스포 현장의 혁신적인 건축물, 국제관 내 쌍방향 전시물, 획기적인 기술, 알찬 문화 프로그램 등이 방문객에게 유익하고 매력적인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전 세계 인류가 직면한 과제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또한 엑스포는 ‘공공외교와 국가브랜드화를 위한 독특한 플랫폼’이자 ‘변화의 촉매’, 나아가 ‘세계를 향한 창’으로서 개최지는 경제적, 문화적 발전을 통해 지속적인 도시 변혁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2030월드엑스포 유치에 대한민국이, 우리 부산이 나서고 있다. 2030부산월드엑스포는 그래서 우리 부산에 있어서 서울올림픽, 한일월드컵보다 훨씬 값지다.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를, 우리 부산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도시브랜드를 세계에 알리게 된다.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과 부산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21세기의 중심국가, 선진도시로 거듭나는 부산 역사의 새로운 도전 기회가 열렸다.

21세기 들어 세계는 엄청난 시련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를 비롯해 기후변화를 포함한 글로벌 주요 이슈가 전

세계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2030월드엑스포는 인류의 현안을 미리 진단해 해결하는 실마리를 푸는 장이 돼야 한다. 2030월드엑스포는 글로벌 이슈인 저성장과 양극화 그리고 빈곤문제를 해결할 국제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일어날 빈곤과 산업화 문제의 극복을 통한 미래산업의 모습을 제시하는 전시장, 전쟁 및 테러의 위협과 지구 안전과 관련된 이슈를 해결할 대안 모색의 평화엑스포가 돼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는 10년 뒤 2030년 이후의 글로벌 메가트렌드를 반영하고, 글로벌 솔루션을 제시하는 대한민국, 대표 도시 부산의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야 한다. 6·25 동족상잔의 비극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모델도시로서 세계인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는 엑스포를 통해 부산을 바꾸고, 부산을 통해 미래의 희망과 비전을 세계에 발신하는 일이다.



## 2030월드엑스포와 대한민국 그리고 부산

### 1) 2030월드엑스포와 한국

1928년 BIE 설립 이후 엑스포는 총 17개국에서 44회 개최됐다. 이탈리아(로마, 나폴리, 토리노2, 제노바, 밀라노), 미국(시카고, 뉴욕, 샌안토니오, 스포캔, 녹스빌, 뉴올리언스)이 각 6회씩 가장 많이 개최하였으며, 대륙별로는 유럽 지역이 57%로 총 개최된 엑스포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아시아권에서 등록엑스포는 일본이 2회, 중국이 1회 개최하였는데 우리나라는 등록엑스포를 개최하지 못했다. 역대 엑스포는 기념비적 건축물과 개최국의 기술력·국력 과시의 장이었다. 현대적 월드엑스포는 인류 공통의 관심사를 모색하면서 경제효과, 일자리 창출 및 사후활용 등 수익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여기서 2030월드엑스포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개최해야 하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 국제적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성장한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이다. OECD 회원국가로 GDP 규모 세계 12위(2018년), 1인당 GDP 3만 달러(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 7번째), GDP대비 R&D투자 비중 세계 1위 국가가 오늘날 대한민국이다. 이런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은 사람이다. 특별한 자원 없이 교육, 모험정신, 기술, 문화 등을 바탕으로 성장한 나라이자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인류 평화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는 나라 또한 대한민국이기에 월드엑스포가 추구하는 평화이념과 잘 맞다. 따라서 인류의 당면문제인 이데올로기적 갈등, 전쟁, 양극화, 환경파괴, 빈곤, 자유의 억압문제 등을 풀어나가는 데도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기도 하다. 21세기 들어와 등록엑스포가 선진국 위주로 개최되었지만 개도국인 중국 상하이도 개최한 마당에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춘 대한민국이야말로 월드엑스포를 개최할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다.





2030년은  
BIE 창립 한 세기가 넘어  
열리는 첫 월드엑스포이다.  
우리나라 광복 85주년이자  
한국전쟁 80주년 되는 해이다.  
국내 개최 국제대회에  
분단 이후 처음 북한을 참가시킨  
부산아시안게임 28주년이고  
부산APEC정상회의  
25주년을 맞는 해로  
부산이 2030월드엑스포를  
유치하는 것은  
많은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나서야 한다. 88서울올림픽이 우리나라를 전 세계에 알렸다면, 이제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 부산이 대표도시로 나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려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 2) 2030월드엑스포와 부산

2030년은 BIE가 창립된 지 한 세기가 넘어서 열리는 첫 월드엑스포이다. 2030년은 우리나라가 광복 85주년이자 한국전쟁 80주년이 되는 해이다. 2030년은 국내 개최 국제대회에 분단 이후 처음 북한을 참가시킨 부산아시안게임 28주년이 되는 해로 평화축제의 경험을 살린 부산의 이미지를 다시 부각시킬 수 있고 부산APEC정상회의 25주년을 맞는 해로 역사상 글로벌도시 부산을 세계에 각인시킬 기회의 해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부산이 2030월드엑스포를 유치하는 것은 많은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2030부산월드엑스포는 세계 평화의 상징이 된다. 식민지와 분단의 아픔, 전쟁의 상처로 인한 사회갈등과 빈곤을 극복해온 평화와 번영의 메시지를 세계에 발신할 수 있다. 부산은 한국전쟁 때 전 세계 자유국가 지원의 교두보였고, 피란민을 먹여 살린 피란수도였다.

둘째, 부산월드엑스포는 문화의 상징이 있다. 부산은 해양도시로 전 세계와 연결된 해양문화와 식민지를 겪은 혼용문화의 중심으로 오늘날 세계에 널리 알려진 한류를 비롯한 한국의 전통문화와 함께 세계문화가 혼재된 다이나믹한 문화를 갖고 있다. 이러한 인류 보편의 문화를 세계인과 나눌 준비가 돼 있다.

셋째, 부산월드엑스포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세계에서 보기 드문 역사를 써온 도시로서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 부산은 한국전쟁

이후 한국 근대화의 경제물류 중심지로서의 부산항이 있고, 삼성, LG, 대우 등 글로벌 기업이 창업을 한 곳이다. 또한 4·19, 10·16, 6·10 민주항쟁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불을 붙여온 곳이기도 하다.

넷째, 부산월드엑스포는 미래산업과 미래과학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 부산은 산업화를 이룬 한국의 제2의 도시로 ICT산업 및 과학기술이 발달한 대한민국의 세계 전시장으로 세계에 한국의 과학기술 및 산업의 미래를 조명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부산은 인류 공존과 번영의 지혜 공유를 중시하고 시대적 아젠다를 제시하는 엑스포의 이념에 가장 잘 어울리는 개최 적임지라 할 수 있다.

## 3) 2020월드엑스포 부산 개최의 효과

월드엑스포 개최는 국가나 개최도시의 홍보효과가 가장 크고, 개최를 통한 막대한 국가 및 지역 고용 창출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동안 선진국 개최 건수가 90% 이상인 것이 월드엑스포의 직·간접적인 경제효과가 큰 것을 방증한다. 부산이라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부산은 2030월드엑스포를 통해 도시를 혁신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2030월드엑스포 부산 개최의 효과를 경제·산업 분야에서 보면 엑스포 개최를 통해 국가경제의 활력 증진을 기대할 수 있다. 주제 관련 산업기술의 육성, 교통을 비롯한 지역발전 기반을 다지는 SOC분야 투자 활성화, 경제활력 증진을 가져올 수 있다. 부산 원도심지역의 재정비 촉진 기회, 문현금융단지 연계 발전, 신항배후도로 확충으로 광역 연계 개발 등이 가능하다. 부산연구원의 2030부산월드엑스포의 파급효과 분석결과는 생산유발 49조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0조 원, 취업유발효과 54만 명에 이른다. 세계적 물류허브 및 크루즈항만 개발, 신공항과 함께 부산에서 중국과 러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철도의 ‘신실크로드 시대’를 열어가



는 계기가 될 수 있다. ‘2030월드엑스포 부산유치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월드엑스포와 관련한 ‘2030부산비전’은 1인당 소득 5만 불, 세계 3대 글로벌 해양도시, 고용률 70% 달성 목표로 잡고 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부산월드엑스포 개최를 통해 관광마이스(MICE) 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엑스포는 문화관광산업의 핵심이기도 하다. 2017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수는 1,334만 명으로 중국, 일본 관광객이 과반수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우리나라, 특히 부산을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월드엑스포는 영화영상, 음식, 패션, 노래 등 지역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 및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부산월드엑스포는 중앙집권국가인 우리나라의 지역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부산뿐만 아니라 부울경 동남권이 국가 성장동력의 지역거점으로 거듭나게 되고 남부권의 경제사회 활성화가 기대된다. 부산은 유라시아 관문도시로의 위상 제고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에 기여하고, 물류3합(철도·항만·공항)의 완성으로 세계적 물류 허브(국제물류도시)로의 도약을 이뤄내 명실상부한 동북아시아 글로벌 해양수도 실현이 가능해 질 것이다. 개최지로 유망한 북항 재개발을 통해 부산 권역별 지역불균형 해소 및 중부산권의 역사문화자원과 해양을 연계한 해양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원도심 재생사업,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부산의 도심재생과 대개조를 기대할 수 있다.

[표 1 - 21세기 월드엑스포 개최지와 개최효과 비교]

개최 년도	개최지	투자액 (조 원)	개최효과			비고
			관람객 (만 명)	경제효과 (조 원)	일자리 (천 개)	
2005	일본 아이치	1.7	2,200	70.7	450	
2010	중국 상해	5.3	7,300	52.7	630	GDP 2~3% 증가
2015	이탈리아 밀라노	4.3	2,200	63.0	150	

자료: BIE 홈페이지, 부산연구원 자료(상해) 참조



### 2030월드엑스포 개최 최적지 부산의 매력과 입지의 강점

#### 1) 입지의 우위성과 탁월한 교통인프라

월드엑스포는 개최도시의 입지와 테마가 유치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볼 때 부산은 한마디로 개최후보지로서 입지적 우위성과 탁월한 교통인프라가 강점이다. 입지적 우위성은 바로 해양·대륙의 연계거점이라는 점이다. 철도, 도로, 항만, 공항의 입체적 연계와 이를 통한 전 국토 접근성 및 글로벌 접근성 확보와 세계 5위 항만을 보유한 물류도시가 바로 부산이다.

이러한 입지적 강점은 바로 편리한 교통접근성과 연결된다. 부산은 철도, 도로, 항만, 공항의 결절점(node)인 유라시아 관문으로 인근지역 인구 1,000만 이상의 중추도시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신공항 건설이 더해지면 글로벌 허브도시로 중국의 거대시장 흡수도 가능해 2030월드엑스포 개최지로서 수용능력이 타 도시보다 뛰어나다.

## 2) 풍부한 관광문화자원과 사회인프라

부산은 풍부한 관광문화자원을 갖고 있다. ‘4포지향’이라고 하는 부산은 산과 강, 바다, 그리고 온천을 갖춘 천혜의 자연자원과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풍부한 역사문화자산을 갖고 있다. 이와 함께 부산국제영화제, 부산세계불꽃축제 등 국제적인 관광문화축제도 많다. 테마중심의 동부산, 자연중심의 서부산, 원도심 중부산이 인근 부울경지역과 연계돼 동아시아 쇼핑관광의 메카가 되고 있다.

부산은 관광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다. 해운대지역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백화점과 벅스코, 제2벅스코, 영화의전당이 자리잡고 있고, 북항에는 오페라하우스 등 세계적인 관광시설이 구축되고 있다. 숙박시설도 동부산 지역의 6성급 객실 1,000실을 비롯해 부산에만 5성급 이상 호텔이 121 곳으로 객실수도 2,500개 이상이다. 이러한 관광인프라는 2030부산월드엑스포를 저비용 고효율 이벤트로 개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부산시가 2020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에서 국제관광도시로



최종 선정돼 2024년까지 5년간 500억 원의 정부 지원을 받게 된 것도 호재다.

## 3) 대형 국제행사 개최 경험과 글로벌 컨벤션 역량

부산은 대형 국제행사 개최경험이 많은 도시이다. 해마다 부산국제영화제, 부산세계불꽃축제, 지스타 등 세계적인 이벤트가 열리고, 한·중·일 크루즈 관광시장도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메가 이벤트 경험을 축적하여 대형 국제행사에 대한 노하우를 확보하고 있다. 아시아 4대 마이스 도시로서 부산은 글로벌 컨벤션 역량을 갖고 있다. 부산은 UIA(국제협회연합) 평가 2017년 아시아 4위(1위 싱가포르, 2위 서울, 3위 도쿄), 세계 7위의 글로벌 마이스도시다.

부산은 이처럼 대형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행사 전문인력과 대규모 자원 봉사자시스템을 갖고 있다.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로 시민적 관심과 협력 분위기가 높고, 지역 내 대학이 24개로 세계인과 의사소통가능 지원 인력 또한 풍부한 것이 강점이다.

## 4)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부산은 한국 제2의 도시로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갖추고 있다. 문현금융단지는 서울과 함께 우리나라의 금융 중심지로 글로벌 비즈니스의 토대가 되고 있다. 지역 내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해외 직·간접 투자, 관광산업, 해양레저산업의 발전을 통해 부산지역의 생산 증가, 고용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확대되고 있다.

부산권은 충분한 글로벌 비즈니스 수요기반을 갖고 있다. 한해 평균 해외관광객 300만 명, 여름철 해수욕 시즌에 국내관광객 4,000만 명 이상이



부산을 방문해 부산권은 거대한 관광시장의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최근 부상하는 ‘부울경 메가시티’와 같이 부울경이 하나의 생활경제권역으로 묶이면 남부권 전체의 동반성장이 가능하다. 부산을 중심으로 일본과는 규슈권이, 중국과는 상하이권이 연계되면서 한중일 초광역경제권이 형성되어 내수시장의 확장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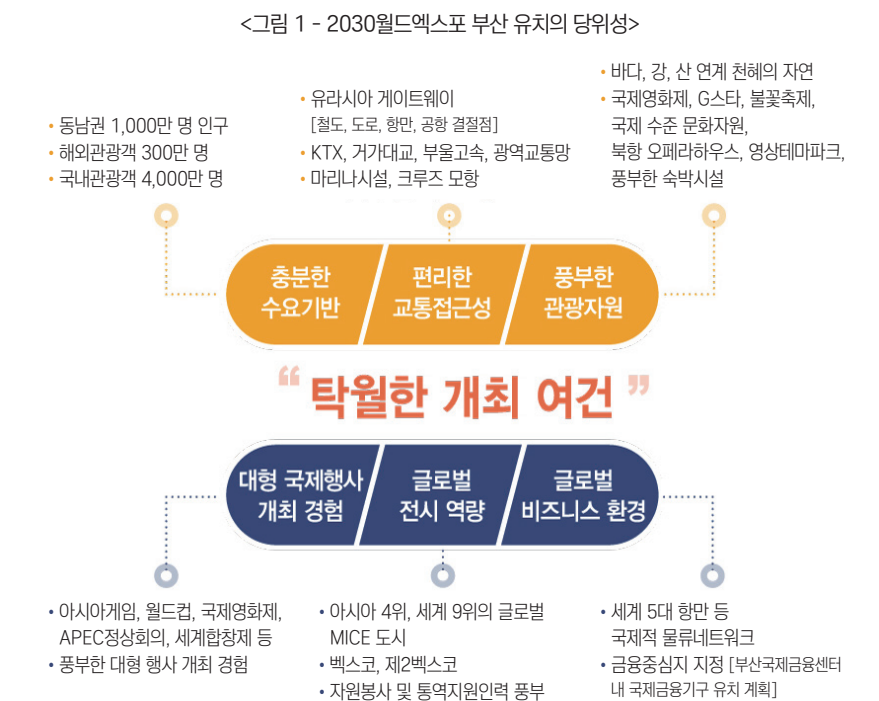
부산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은 대한민국의 국가 및 지역의 장기발전 계획과도 부합한다. 국가 차원의 국토종합계획수정계획(2011~2020)에서 동남권 발전방향이 해양문화관광산업 육성이며 이 중 부산은 국제적 문화·관광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으로 돼 있다. 부산발전 2030비전계획(2015)에도 2030부산월드엑스포를 통한 글로벌 마이스도시 구축이 핵심사업이다. 북항 그랜드 마스터플랜(북항1단계)과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는 부산의 장기발전계획과 그대로 연결된다. 2030부산월드엑스포는 글로벌 관광비즈니스 도시 부산으로 대한민국에 새로운 경제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아울러 부산권의 대규모 일자리 창출과 지역 내 각종 중소기업의 시장의 확대를 가져옴은 물론이다.

## 5) 민관협력의 강력한 유치 의지

2030부산월드엑스포 개최의 관건은 부산시의 강력한 유치 의지에 달려있다. 부산은 민관거버넌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유치운동을 해왔다. 부산시는 2014년 7월부터 2030부산엑스포 유치 추진방안을 수립해 그해 11월 ‘2030 부산엑스포 유치 범시민 준비위원회’를 구성했고, 2015년 7월 ‘2030부산등록엑스포유치범시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 해 9월에는 2030부산등록엑스포 유치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10월에는 서명운동을 전개해 2016년 4월 100만인 서명운동 목표달성 선포식(3월 기준 135만 명 달성)을 가지는 등 선도적인 활동을 펴 2018년 4월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계획안’ 국제행사승인 타당성 통과를 얻어냈다. 2018년 10월엔 ‘2030부산세계

박람회 개최계획서(북항 일원)’를 제출했고, 2019년 4월에 ‘2030월드엑스포 부산유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부산시가 2030월드엑스포 한국 유치의 개최도시로 선정된 상태로 앞으로 엑스포 주제를 확정하고, 올해 BIE에 유치신청을 하면, 2022년 실사를 거쳐 2023년에 개최 여부가 결정된다.

부산시는 2014년에 박람회 유치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TF팀을 구성해 자료 수집, 박람회전문가·BIE 관계자·외교라인 네트워크 형성, 벤치마킹 등 유치 추진기반을 마련했고, 2015년에는 민관추진 협력체계 범시민유치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타당성확보 논리개발 용역을 추진하고, 100만인 서명운동 등 범시민 공감대 형성에 나서고 있다. 2018년 정부승인을 받고 2019년부터는 국가사업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민관거버넌스를 통한 ‘다이내믹 부산’ 시민의 열정을 세계에 알리는 일이야말로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의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다.



자료: 2030월드엑스포 부산유치위원회 홍보자료



## 2030부산월드엑스포의 비전

### 1) 세계적 차원에서 글로벌 이슈 해결의 장이 돼야

2030부산월드엑스포는 2030년 이후 글로벌 주요 이슈를 제시하고 세계가 공감하는 장을 펼쳐야 한다. 2020년 전 세계가 겪은 코로나19는 기후변화의 한 현상이다. 이런 점에서 2030부산월드엑스포는 기후변화를 포함한 유엔(UN)의 2030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실현을 사전 점검하고 향후과제를 잘 담아야 한다. SDGs는 17개 목표 및 169개 세부목표를 갖고 있는데 17개 목표는 △빈곤 종식 △기아 종식과 지속가능 농업 △보건과 복지 △양질의 교육 △양성평등 △물과 위생 △에너지 △일자리와 경제성장 △혁신과 인프라 △불평등 완화 △지속가능한 도시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기후변화 대응 △해양 생태계 △육상 생태계 △평화와 정의·제도 △파트너십이다. 2030부산월드엑스포는 SDGs 가운데 △양질의 교육 △양성평등 △에너지 △불평등 완화 △지속가능한 도시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기후변화 대응 △해양 생태계 △평화와 정의·제도 △파트너십 분야에서 우리나라, 특히 부산이 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를 찾아내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 2030부산월드엑스포는 저성장 양극화의 구조화문제에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해 선진국과 개도국의 미래산업의 전망과 과제를 적극 다룰 필요가 있다. 4차 산업혁명과 산업화 및 빈곤·실업문제 해소와 글로벌 경제구조의 리스크와 글로벌 금융시장의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경쟁력 제고와 경제 체질 개선이 요구된다. 2030부산월드엑스포는 이러한 세계적 이슈를 발굴하고 부산발 희망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

### 2) 남북통일 평화시대, 통일의 촉매가 돼야

세계인의 공통 소망은 평화이다. 즉 전쟁 및 테러와 일상적 안전의 위협

이슈에 대응하는 세계 국가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말이다. IS 및 글로벌 테러와 전쟁의 위협은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와 함께 1990년 이래 독일 통일과 옛 소련 붕괴로 이데올로기전쟁은 사라지고 있으나 아직도 한반도는 휴전상태로 남북한이 적대적 대치를 한 채 지구상의 유일한 이데올로기 분단국가로 남아있다.

2030부산월드엑스포를 계기로 남북이 상호 존중하고, 적대적 관계를 해소해 통일 전 단계로 남북경제교류 및 협력을 통해 새로운 한반도, 한민족의 웅비를 세계에 보이는 장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 3) 글로벌 해양관광산업도시 부산의 도시브랜드 및 경쟁력 제고를

부산월드엑스포는 대한민국의 경제사회구조의 안정적 구축, 특히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 나아가 남부권경제의 도약을 이끌어내야 한다. 부울경 지역 조선사의 경영 악화, 해운업계의 장기불황을 극복하고 해운



산업 재건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 해양관광 및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해양관광산업도시로 가기 위해선 기존의 노동, 공공, 교육 및 금융개혁을 바탕으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지능형로봇 자율주행차, 수소선박, 바이오신약 헬스케어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급선무이다.

또한 부산의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해서는 부산의 매력을 발굴하고, 이를 부산의 정체성과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마이스산업,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2009)에서 황희곤·윤은주는 도시의 브랜드 이미지, 아이덴티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도시마케팅은 전통적 마케팅의 4P 모델(Product, Price, Place, Promotion)에다 People(사람)을 추가한다. 우리 부산의 매력을 더해줄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해 조직화하고, 지역주민이 도시 생명력의 열쇠로 도시마케팅의 의사결정에 참여해 각종 문화활동이나 관광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제시로 국제행사 유치의 동기부여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당초 2020년 10월에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될 예정됐으나 코로나19로 2년 연기된 ‘물류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세계물류협회(FIATA) 부산 세계총회’를 통해 도시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이제 부산은 단순한 물류항만만이 아니라 세계인을 끌어들이는 매력 있는 해양문화도시로, 2030부산월드엑스포는 한류(韓流)를 바탕으로 ‘21세기 문화개항’의 부산항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

#### 4) 글로벌 스탠더드, 세계시민 부산인으로 정보 발신이 핵심

2030부산월드엑스포는 대한민국, 부산다운 매력을 세계에 전하고, 방문객들이 재미와 공감을 갖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이내믹 부산’의 매력을 가진 종합 콘텐츠를 만들어 가야 한다. 예를 들면 국내외 사람

들로부터 ‘부산을 사랑하는 101가지 이유’를 만들어 다양하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부산국제영화제 개최도시이자 유네스코 영화창의도시인 부산을 배경으로 ‘로마의 휴일’, ‘미드나잇 인 파리’와 같이 부산이 묻어나는 세계적인 명화를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는 부산은 대한민국의 제2도시라는 틀에서 벗어나 ‘글로벌도시 부산’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바탕으로 다문화·이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야 한다. 그런 점에서 다문화·이문화에 대한 이해교육과 제대로 된 관광가이드·해설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부산시민의 ‘친절성’ ‘개방성’ ‘역동성’을 세계에 보여주는 월드엑스포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운동은 부산시민이 중심에 서야 한다



2030부산월드엑스포의 비전은 보여주기식의 외형적 전시가 아니라 세계시민 부산의 삶의 질을 세계인이 느끼게 해야 한다. 부산다운이 한류의 하나로 전 세계로 절로 퍼져가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도시 매력도 평가는 보통 ①사람 ②여행형태 ③야간경관 및 유흥 ④문화 ⑤쇼핑 ⑥음식·식당 ⑦삶의 질·방문자 경험 ⑧방문 최적시기 등으로 한다고 한다. 이 가운데 으뜸 평가요소는 사람, 바로 우리 부산시민의 삶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 이런 면에서 우리 부산시민의 ‘친절성’ ‘개방성’ ‘역동성’을 세계에 보여주는 월드엑스포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운동은 부산시민이 중심에 서야 한다.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는 바로 우리 부산시민의 비즈니스라는 사실을 공유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 03 | 역대 등록엑스포 주제와 부산 엑스포 주제 방향



범지구적 이슈 담아낼 수 있는  
주제를 고민해

인류 지속가능성의  
유토피아적 비전 제시해야

김이태 부산대 관광컨벤션학과 교수 엑스포마이스연구센터장  
mkyt@pusan.ac.kr



### 우리나라 엑스포 역사와 주제개발 방향

□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최된 박람회는 1906년 부산에서 한일 양국 공동으로 개최한 ‘일한상품박람회’이다. 민간 차원이지만 최초로 국내에서 개최된 박람회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후 1907년 경성박람회가 개최되었고 1993년 대전엑스포를 비롯하여 2012년 여수 박람회까지 개최하였으며 현재 2030월드엑스포를 부산에 유치하려 하고 있다. 2030부산월드엑스포를 유치한다면 우리나라 엑스포 개최 역사상 부산에서는 최초 개최 및 국내 최초 등록엑스포 개최라는 타이틀을 2개나 가지게 된다.

엑스포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활동이 중요한데, 그 중 주제 선정 또한 매우 중요하다. 엑스포 개최에 있어 주제(theme)설정은 엑스포라는 캔버스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핵심 비전으로 엑스포의 중추(central core)가 된다. 따라서 엑스포 주제 설정 시 엑스포 중심가치인 ‘대중 교육’, ‘혁신 창출’과 ‘세계적 담론과 협력 촉진’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

<그림 1 - 일한상품박람회 광고지>



자료: <http://www.emuseum.go.kr/detail?relicid=PS0100300500100757100000>

(Loscertales, 2011). 이처럼 엑스포 주제가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크기 때문에 BIE에서는 엑스포 주제 선정과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sup>1)</sup>하고 있다. 즉, ‘모든 나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세계적인 관심사여야 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며,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언어, 문화 등의 차이로 인한 오해의 소지와 정치적 성격을 배제해야 하고, 다른 엑스포에서 다루지 않은 신선한 주제여야 하며, 전시연출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너무 추상적이지 않아야 하고, 개최지와와의 적합성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엑스포 주제는 상품을 판매하는 상업적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슬로건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전 세계적인 보편성이 주장되어야 하며 핵심 콘텐츠와 관련된 깊이와 중요성을 내포해야 한다 (Juan Correias, 2015). 즉, 엑스포 주제는 엑스포 개최의 당위성을 대변하는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대중에게 인류의 당면 문제를 전파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발굴 및 교육하는 기회의 장을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김이태·오성근 2019).

2030부산월드엑스포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주제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에 다른 엑스포에서 다루지 않는 주제를 위해 역대 등록엑스포 주제를 살펴보고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부산 엑스포 주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1990년대 이전 엑스포 주제

1) Preliminary enquiry for BIE registration or recognition of international exhibitions, BIE.

최초의 월드엑스포인 1851년 런던 엑스포 주제는 ‘Industry of all Nations’로 19세기 기술·문명개발의 시대로 국가의 과학 및 산업기술을 과시하는 방향이었으나, 이후 20세기 초 전쟁의 영향으로 엑스포 주제는 세계평화와 번영, 도시개발 전략 중심의 새로운 이념과 사고방식을 제시하고, 미래사회의 새로운 가치관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는 주제 구현을 통하여 인류 문명의 창조성을 자극하고 인류 문화와 기술을 선도하는 한편 평화로운 발전과 공존의 개념을 보급하고 다양한



문명과 문화의 교류를 촉진하였다(산업연구원, 2015). 2차 세계대전 이후 1958년 브뤼셀 엑스포에서 ‘보다 인간적인 세계를 위하여’라는 주제를 필두로 1962년 시애틀 엑스포, 1967년 몬트리올 엑스포, 1970년 오사카 엑스포 등 엑스포 주제가 인류 발전의 성과 자체에서 ‘인간(Man 또는 Mankind)’으로 변하는 전환점이 되었고 ‘인간’이 주제로 계속 다루어져 왔다. 또한 1970년대 이후 생태·환경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환경’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다루기 시작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 신기술 진보 및 소개보다는 인류 공동의 미래건설이라는 보편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주제를 선정하였다.

[표 1 - 국제박람회기구(BIE) 설립 이후 월드엑스포 주제]

행사명	개최 기간	개최지	주제 및 소주제
Brussels International	1935.04~11	브뤼셀, 벨기에	Transports
Paris International	1937.05~11	파리, 프랑스	Arts and Technology in modern life
New York World's Fair	1939.04~1940.10	뉴욕, 미국	Building The World of Tomorrow
Exposition internationale de Port-au-Prince	1949.12~1950.06	포르토프랭스, 아이티	The festival of peace
Brussels World's Fair	1958.07~09	브뤼셀, 벨기에	A World View: A New Humanism
Century 21 Exposition	1962.04~10	시애틀, 미국	Man in the Space Age
Expo 1967	1967.04~10	몬트리올, 캐나다	Man and His World
Expo 1970	1970.03~09	오사카, 일본	Progress and Harmony for Mankind
Expo 1992	1992.04~10	세비아, 스페인	The Era of Discovery

자료: BIE 홈페이지 내용을 토대로 연구자 요약 정리

21세기 들어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환경 친화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탐구하고 문제를 제기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과 인류의 미래를 위한 생각에 엑스포 개최 의의를 두었다. 이 당시 각국의 엑스포 유치를

2000년 이후  
엑스포 주제

위해 제안되었던 주제들을 살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엑스포 주제 구현과 관련하여 2000년 하노버, 2005년 아이치 및 2010년 상하이 엑스포 사례에서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유토피아적인 비전을 제시하였으

[표 2 - 2000년 이후 월드엑스포 주제(경쟁도시 포함)]

연도	도시 및 주제
2000년	<b>하노버</b> : Humankind, Nature, Technology- A New World Arising ①The 21st Century ②Planet of Visions ③Human ④Knowledge ⑤Mobility ⑥Communication ⑦Energy ⑧Health ⑨Nutrition ⑩Environment ⑪Basic Needs ⑫Future of Labours
	토론토
2005년	<b>아이치</b> : Nature's Wisdom
	캘거리
2010년	<b>상하이</b> : Better City, Better Life
	여수 : The Ocean, In Harmony with Humankind
	모스크바, 멕시코, 폴란드
2015년	<b>밀라노</b> : Feeding the Planet, Energy for Life
	이즈밀 : Health for all
2020년	<b>두바이</b> : Connecting Minds, Creating the Future ①Opportunity ②Mobility ③Sustainability
	<b>예카테린버그</b> : The Global Mind: The Future of Globalization and Its Impact on our World ①Globalization & Innovation ②Globalization & Culture ③Globalization & Economics ④Globalization & Society
	이즈밀 : New routes to a better world: Health for all
	상파울러 : Power of diversity, power of ideas
	<b>오사카</b> : Designing Future Society of Our Lives ①How to Lead a Healthy Life ia a Diverse Manner ②Sustainable Socioeconomic Systems
	<b>예카테린버그</b> : Changing the World: Innovation and Better Life for Future Generation ①Human drive: skills, values & fwlings ②Digital Universe ③Future technologies ④Facing megatrends
2025년	<b>바쿠</b> : Developing human capital, building a better future ①Talent: the future of education ②Vitality ③Achievement: the future of work
	파리 : Sharing our knowledge, Caring for our planet

\* 자료: BIE 홈페이지 내용을 토대로 연구자 요약 정리.

\*\* 볼드체의 경우 엑스포 개최지임.

며 일부 성과를 거두었지만, 전반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평가였다. 이후 UN지속가능개발목표(UN SDGs)가 국제사회 공동의 목표로 대두하면서 인류 미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 간 협력과 이해향상에 대한 합의에 이르면서 엑스포 주제도 이와 연계하는 추세이다. 2025오사카·간사이엑스포의 경우 UN SDGs를 중심으로 주제를 개발하였고, 특히 17개 목표 중 하나인 건강과 복지에 초점을 맞추어 ‘삶을 위한 미래사회 디자인(Designing Future Society for Our Lives)’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2030부산월드엑스포  
주제어는 부득이하지 않다면  
Better와 Future를  
키워드로 하는 것은  
회피하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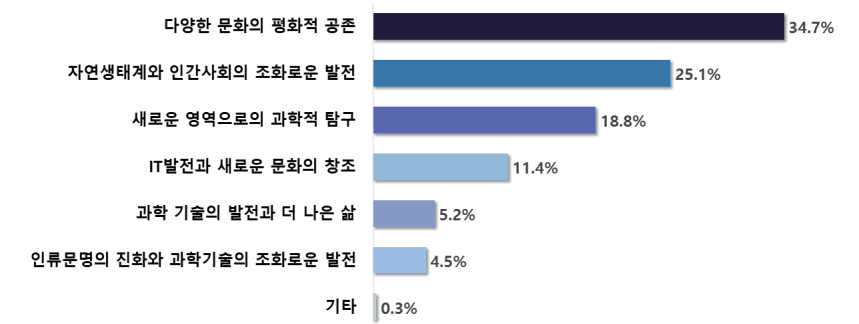
<표 2>에서 보면 2000년 이후 엑스포 유치를 위해 각국에서 제시한 주제(소주제 포함)어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한 키워드는 Future(9), Better(5), Human (Humankind)(5), World & Our(4), Planet & Life(3) 순으로 제시되었다. 엑스포는 범지구촌을 하나로 연결시키며, 범지구적 이슈를 담아낼 수 있는 공동의 주제를 제시함으로써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하지혜·유진형, 2013). 그러나 가능하면 이러한 키워드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즉, 미래의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지향하는 점은 인정되지만 2025년 엑스포 유치를 위해 러시아가 제시한 주제 ‘Innovation and Better Life for Future Generation’이나 아제르바이잔의 ‘building a better future’, ’20년 터키의 ‘New Routes to a Better World’, ’10년 상하이의 ‘Better City, Better Life’ 주제나 그리고 2020 두바이의 ‘Connecting Minds, Creating the Future’, 와 예카테린버그, 2025 오사카의 ‘Designing Future Society of Our Lives’, 예카테린버그와 바쿠에서 주제로 사용된 점 Better나 Future 등이 중복되어 주제 참신성을 저해한다고 본다. 따라서 부득이하지 않다면 Better와 Future를 키워드로 하는 것은 부산 월드엑스포 주제 선정 시 회피하여야 할 것이다.

## 국내의 부산등록 엑스포 주제조사 동향

한편으로 국내에서는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타당성 기초조사를 위해 국내 거주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존(34.7%), 조화(25.1%), 새로운 영역의 탐구(18.8%) 등 부산에서 등록엑스포가 개최되었을 때 어울리는 주제로 조사되었다.

김이태(2018)의 부산지역 대학생 442명을 대상으로 한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 부산에 어울리는 주제에 대한 조사 연구에서 ‘미래도시와 라이프스타일(44.8%)’이 가장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뒤이어 ‘미래 기술의 고도화(12.7%)’, ‘식수, 식량 확보에 관한 기술 발전(11.8%)’, ‘융·복합적 다문화 공생(5.7%)’, ‘기후변화, 자연재해(5.5%)’ 순으로 나타났다. 이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19년에 부산시와 범시민유치위원회가 주최한 2030부산월드엑스포 주제 공모전에서 평화와 공존, 변화와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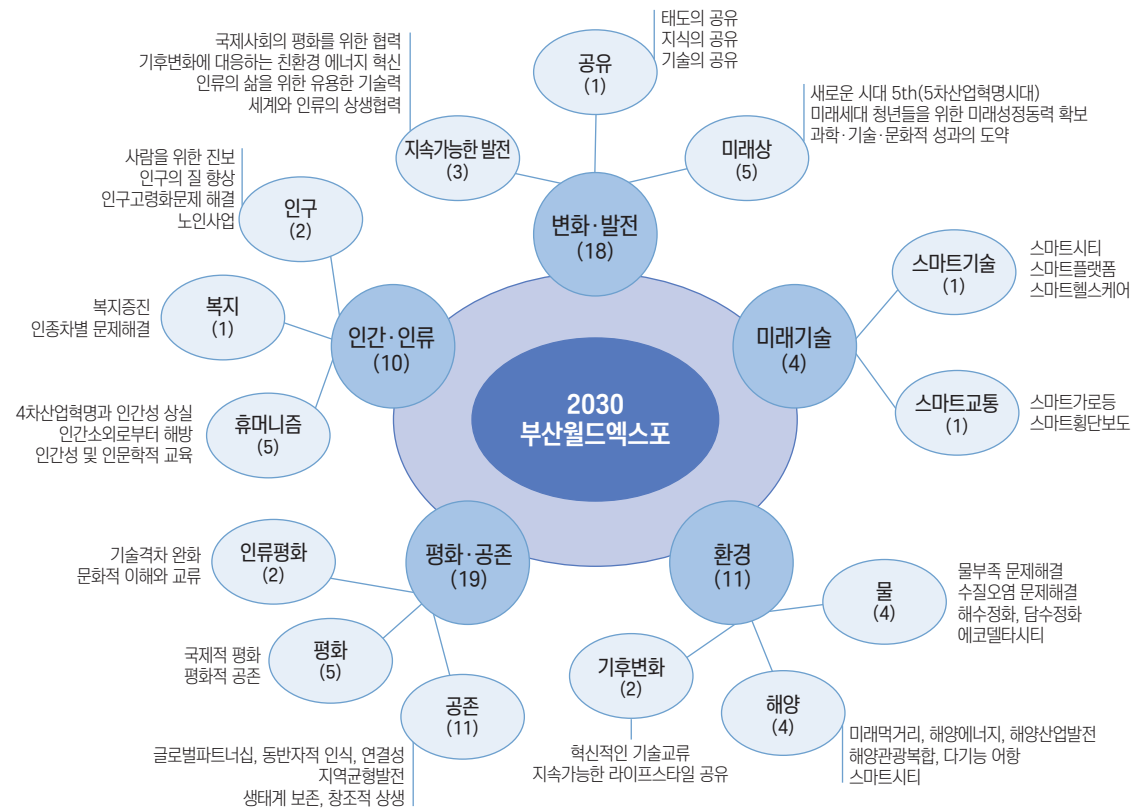
<그림 2 - 부산 등록엑스포가 개최된다면 어울리는 주제>



<그림 3 - 부산지역 대학생이 인식하는 엑스포주제>



&lt;그림 4 - 2030부산월드엑스포 주제공모 내용 키워드 분석&gt;



환경, 인류, 미래기술이 주제 키워드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는 인류의 공존과 환경을 고려한 발전전략, 이러한 변화를 이끌 책임 있는 미래 기술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겪으며 이 필요성은 더 강조되어 이를 내포한 주제가 부산 월드엑스포 주제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주제 개발 방향으로는 지금까지 연구 조사되어온 국내 엑스포 주제 관련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주제에 관한 공통적인 키워드를 찾아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일례로 2000 하노버 엑스포는 독일에서 개최된 첫 월드

엑스포이자 세계적인 전시컨벤션도시에서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여 관람객 유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2015년 발표된 UN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WHO, 유네스코 등을 비롯하여, 국제기구에서 발표된 각종 보고서에서 논의되는 아젠다(agenda), 의제 등을 활용해 국제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기반으로 타당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전 세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김이태·오성근 2019). 또한 엑스포 주제는 범지구촌을 하나로 연결시키며, 범지구적 이슈를 담아낼 수 있는 공동의 주제를 제시함으로써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지속가능성장에 대한 유토피아적인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볼 때 앞의 연구 조사들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비롯하여 지역시민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들 조사에서 밝혀진 공통적인 키워드를 살펴보면 공생·공존, 조화, 변화·발전, 환경, 인간·인류 및 미래기술 등을 엑스포 주제로 선호하는 의견이다. 여기에 UN SDGs와 WHO의 COVID-19 위기에 따른 환경문제 등을 활용 주제를 제안할 수 있다.

UN SDGs에서는 LNOB(Leave no one behind) 즉, 소외(alienation)를 비전으로 사회발전,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 빈부격차, 종교장벽, 환경문제, 정보격차, 자원불균형, 에너지문제 등 인류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인간, 기술, 문화의 조화를 통한) 세부적인 협력과 융합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저개발 국가를 포함한 세계 모든 국가 문화의 독특한 양식과 삶의 조화를 통해 인류의 발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European Commission에서는 ‘2020 Strategic Foresight Repor’에서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식수, 식량 확보에 관한 기술 발전’, ‘기후변화, 자연재해’ 등 세계적 감염병 이후 벌어진 양극화에 따른 불평등 완화, 녹색경제 이행을 위한 탄소제로, 일자리, 자동화 이슈 논의 등 디지털 사회 전환을 위한 노력을 통해 초연결, 급속한 기술발전의 가속화 등 엑스포 주제는 자연생태계와 인간사회의 조화 및 회복에 대한 내용을 담을 필요성이 있다. 회복에는 Social and Economic, Urban, Green, Digital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본다. 모든 인류가 인종과 성별, 종교를 뛰어넘어 모든 인류가 가장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더욱 풍요로운 행복을 창조하며, 기술은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회복하는, 지구와 하나된 녹색기술로 승화하고, 문화는 고유함을 유지하면서도 배타적이지 않은 교류와 협력, 이를 통한 상생과 상호 발전의 소중한 원천으로 더욱 찬란하게 꽃피울 것이다(산업연구원, 2016).



인류가 공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삶과 정신 향상, 과학기술의 활용, 문화의 진화에 있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협력과 조화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



한편 부산 및 전국 전문가 및 주민 대상으로 조사한 주제 의견수렴 방안으로 제시된 엑스포 주제로 인류가 공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삶과 정신 향상, 과학기술의 활용, 문화의 진화에 있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협력과 조화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반으로 자유롭게 연결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창조적 성장 및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긍정적 결과를 누리는 포용적 성장을 통해 세계 공동 번영을 위해 ‘융·복합적 다문화 공생’, ‘다양한 문화의 평화적 공생(live together, Co-living, Sharing)·공존’을 주장해야 한다. 디지털 산업구조에 따른 변화와 혁신, 초고속 통신망을 통한 디지털 연계, 도·농간, 세대간, 다문화 등 서로를 이해하고 세계가 함께 하는 교육의 철학과 공학 및 상생과 공존의 평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인간·인류 및 미래기술로 인공지능(AI), 로봇, 가상현실(VR) 등 최

첨단 기술로 탄생되는 4차 산업혁명을 넘어 Human touch와 Hyper Connectivity 등 ‘미래도시와 라이프스타일’과 ‘미래기술의 고도화’, 새로운 영역의 탐구가 필요하다. 기술이 인류의 삶과 문화에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을 보여주고 향후 미래 인류 삶의 발전양상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종·문화·산업·기술 간 초국경적 교류 및 연결을 통한 재창조를 부각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발전(improvement, development, co-creation)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2030부산월드엑스포 주제 방안을 제시한다면 대주제로 ‘Change(Transformation) for All(모두를 위한 전환)’을 제시하는 한편 소주제로는 1. ‘The resilience without alienation(소외 없는 회복)’과 2. Co-living & Co-creation(상생발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 엑스포 유치에 대한 국민의 열정적인 지지, 개최 기간 및 종료 이후 사후 활용 방안 등 보다 논리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본 제안이 엑스포 주제 도출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김이태(2018). 2030 월드 엑스포에 대한 인식조사 및 사후활용방안. 『2030 부산등록엑스포 2차 국제컨퍼런스 주제발표 자료집』.
- 김이태·오성근(2019). 『MICE관광연구』, 19(4), 27-42.
- 부산연구원(2019).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수정계획.
- 산업연구원(2016).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 타당성 기본계획.
- 하지혜·유진형(2013). 세계박람회 주제구현과 주제적용분야에 관한 연구: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중심으로.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8(2), 81-89.
- Correas, J.(2015). 엑스포 주제의 역사와 미래의 주제. 『2030 부산등록엑스포 2차 국제컨퍼런스 주제발표 자료집』.
- Loscertales, V. G.(2011). A pillar of the Success of EXPO 2010: the Theme Development, BIE.
- <http://www.emuseum.go.kr/etail?relicId=PS0100300500100757100000>
- [https://www.expomuseum.com\(ExpoMuseum 공식 홈페이지\)](https://www.expomuseum.com(ExpoMuseum 공식 홈페이지))
- [https://ec.europa.eu/info/strategy/priorities-2019-2024/new-push-european-democracy/strategic-foresight/2020-strategic-foresight-report\\_en](https://ec.europa.eu/info/strategy/priorities-2019-2024/new-push-european-democracy/strategic-foresight/2020-strategic-foresight-report_en)

## 04 | 교통인프라와 엑스포 유치 경쟁력 강화 방안



유치 경쟁의 승자 결정하는  
주요 결정요소인 교통

등록엑스포 주제에 적합하고  
연관된 내용 포함돼야

— 신용은 동의대 도시공학과 교수  
mrtrain57@hanmail.net



국제박람회기구(BIE·Bureau International des Expositions) 주관 등록엑스포(Registered EXPO)는 글로벌 차원에서 현 세대가 마주한 다양한 도전과제에 대한 해결책 모색을 위해 정부, 민간기업, 국제기구 및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글로벌 모임<sup>1)</sup>이다. 전시관 규모, 전시기간, 방문객 수, 그리고 국가와 지역에 미치는 사회, 문화, 경제적 효과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타 유사 박람회 혹은 국제이벤트와는 비견할 수 없는 최고의 글로벌 이벤트로 알려져 있다. 등록엑스포 유치는 국제적 조명과 관심으로 국가와 개최도시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극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기회라는 선물이 주어지기 때문에 항상 치열한 경쟁을 치러 왔다.

글로벌 도시 비전의 성취를 위해 부산시는 2015년 등록엑스포 유치 당위성과 국가 및 지역에 가져올 방대한 효과에 대한 연구<sup>2)</sup>를 거쳐 2030년을 목표로 등록엑스포 유치 경쟁에 도전하고 있다. 유치 경쟁의 승자는 국제박람회기구조사단 실사와 유치활동을 거쳐 최종적으로 회원국의 투

1) <https://www.bie-paris.org/site/en/about-world-expos>.

2) 2030 부산등록엑스포 유치 타당성 기초조사, KIET 산업연구원, 2015.12.

표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현재 부산시는 유치신청서를 준비 중이며, 그 내용에는 BIE 실사기준이 제시한 다양한 분야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그 내용은 유치활동과 회원국 설득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교통은 이벤트나 전시회가 아니며 이를 지원하는 시설과 서비스에 해당된다. 하지만 Curnow가 지적하였듯이<sup>3)</sup> 메가 이벤트의 성공은 제공되는 교통서비스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타 메가 이벤트와는 비교 불가인 등록엑스포의 발생교통량과 통행패턴을 감안하면 교통 인프라와 서비스에 대한 세밀한 준비와 계획은 당연하며, 기존 교통 인프라와 서비스의 업그레이드 외에도 새로운 인프라와 서비스 계획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즉 등록엑스포의 유치는 부산에 최신 기술과 정책을 적용하여 도시구조를 재정립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장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경쟁의 승자가 되기 위해 교통분야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을 간단히 논의하고자 한다. BIE 실사 기준의 교통분야 내용과 지난 등록엑스포의 교통계획 패러다임 변화를 간단히 살펴보고, 유치 경쟁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고려되고 검토되어야 할 기본적인 사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BIE 실사 교통분야 아젠다

국제등록엑스포 유치신청서(Bid Dossier)에 포함되어야 할 교통분야의 내용은 BIE의 실사기준(Preliminary Enquiry for BIE Registration)의 각 항목에 산재되어 기술되어 있으며 별도로 구분되어 정의되고 있지 않다. 교통분야와 관련되어 기술된 실사 기준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3) Curnow, A. (2000). Environmental issues drive transport plans. Stadia, August, p. 62.

[표 1 - BIE 실시기준: 교통분야 항목 및 내용]

항목	Pre. Enquiry Part 111	주요 내용
교통수요	Article 11: 예상 방문객과 유형 구분	- 지역, 광역, 국가 및 국제수요로 구분 추정 - 첨두기간 수요 추정 - 유형: 일반/비계획, 가족단위, 관광객, 주제관련 방문객 (Article 10: 전시회 관련 참가자 수 추정 요구)
교통계획 및 체계	Article 8	- 개최지로서의 장점과 전시회의 성공을 부각시킬 수 있는 브로 슈어, 소책자 등 자료에 교통체계 포함 - 개최부지의 지역 및 국제교통체계와의 관계 - 지역 교통시설 및 체계가 전시회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 국제교통체계도 마찬가지인가?
연계교통	Article 12(d)	- 방문객과 운영요원의 숙박시설 연결 교통수단
설계도면	Article 10(b)	- 방문객 동선(흐름) 및 내부 교통체계(존재할 경우)

유치신청서에 포함될 내용은 크게 교통수요분야, 내외부 교통계획(연계 체계 포함), 그리고 도면화된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매우 단순한 요청사항들로 기술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 지역, 광역, 국가와 국제수요 간을 연결할 수 있는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교통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교통은 사람과 물류흐름에 대한 원활한 유동성과 접근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sup>4)</sup> 교통체계는 유동성과 접근성을 극대화하는 기능을 하며 하드웨어(인프라, 수단)와 소프트웨어(제도, 운영/통제기법)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기술발전과 환경 및 여건변화에 따라 최적 조합도 꾸준히 변화하여 왔다. Papa(2008)<sup>5)</sup>는 교통계획을 지배하는 패러다임은 시대상황과 기술수준의 변화를 반영하여 왔으며, 동시대의 새로운 교통전략과 신기술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50년간 개최된 10개의 등록엑스포 사례연구(1962 시애틀~2015 밀라노)를 통해 등록엑스포의 교통분야 패러다임이 아래와 같이 변화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1960~1970년대 핵심비전은 ‘progress and speed’로서 교통기술발전과

## EXPO 교통 패러다임 변화

4) 유동성의 사전적 의미는 이동의 속도와 편의성을 의미하며 접근성은 주어진 시간/노력/비용 하에 목적지 도착의 용이성을 일반적으로 의미한다.

5) Papa, E. 'Mega Events and innovative mobility system: the EXPO transport lessons', the Journal of Land Use, Mobility and Environment, 2(2), pp.47-56, 2008.

속도 향상에 초점을 둔 교통계획이 제시되었다(즉 에너지 및 환경문제 등은 도외시 됨).

1980~1990년대는 승용차 산업발전과 승용차 이용자 폭증의 당대 현상을 표현한 ‘automobile dependence’를 기조로 대중교통과 타 수단이 무시된 도로망 위주의 교통계획이 주로 제시되었다.

2000년대는 밀레니엄 시대에 즈음하여 교통계획은 에너지, 환경 및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한 ‘zero emission’을 근간으로 대중교통수단과 자전거, 보행과 같은 녹색교통수단이 강조되었다.

2000년대 이후 상황은 대중교통 중심의 연계체계 구축이 교통계획의 핵심이 되어가는 추세이다<sup>6)</sup>. 예를 들면, 두바이의 경우 수단선택권 제공을 위해 도시철도, 경량전철, 버스 및 해상(수로)수단으로 구성된 다수단 통합교통체계 구축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며<sup>7)</sup>, 2025 오사카의 경우 기존 교통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한 대중교통계획과 국제 수요 처리를 위한 항공 및 해상교통계획, 그리고 수단간 연계체계를 포함한 계획을 제시하였다.

2030년대 교통계획 패러다임 설정은 다가올 미래의 시대상과 트렌드를 반영하는 비전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녹색수단과 대중교통을 주요 요소로 고려하는 지속가능성, 저탄소, 기후변화 등과 같은 보편적인 패러다임을 포함하여 첨단교통분야(ITS), 인공지능, 무인자율주행, 드론교통, 교통빅데이터, Personal mobility 등등 다양한 교통 트렌드와 패러다임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가올 시대가 직면할 당면과제를 예상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신기술, 신개념 및 신기법이 접목된 교통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6) Diaz, K.A, International Mega-Event and Urban Planning in the Context of Toronto, Master's Thesis, York University, Ontario, Canada, 2017.

7) 두바이는 ‘Route 2020’ 사업으로 내외부 연결 도로망 연장, 도시철도연장 및 버스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예산 7.6조 원).



## 부산시 교통현황

부산은 지정학적으로 KTX를 포함한 철도, 광역도로망 및 고속도로 등의 국내의 주요 기종착지이며, 동북아의 해상교통 중심지로서 물류뿐 아니라 여객수송의 국제터미널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도시 전역에 걸쳐 다행히 매우 성숙한 교통 인프라와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2002 아시안게임과 부산국제영화제 등 국제적 인지도가 있는 메가 이벤트를 여러 번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이 있고, 특히 개최 예정 부지가 각종 교통 인프라가 이미 집중된 교통 결절점으로, 이에 따라 전시회 기간 동안 기존 인프라의 활용이 최대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부산과 유치 예정 부지 인근 교통 인프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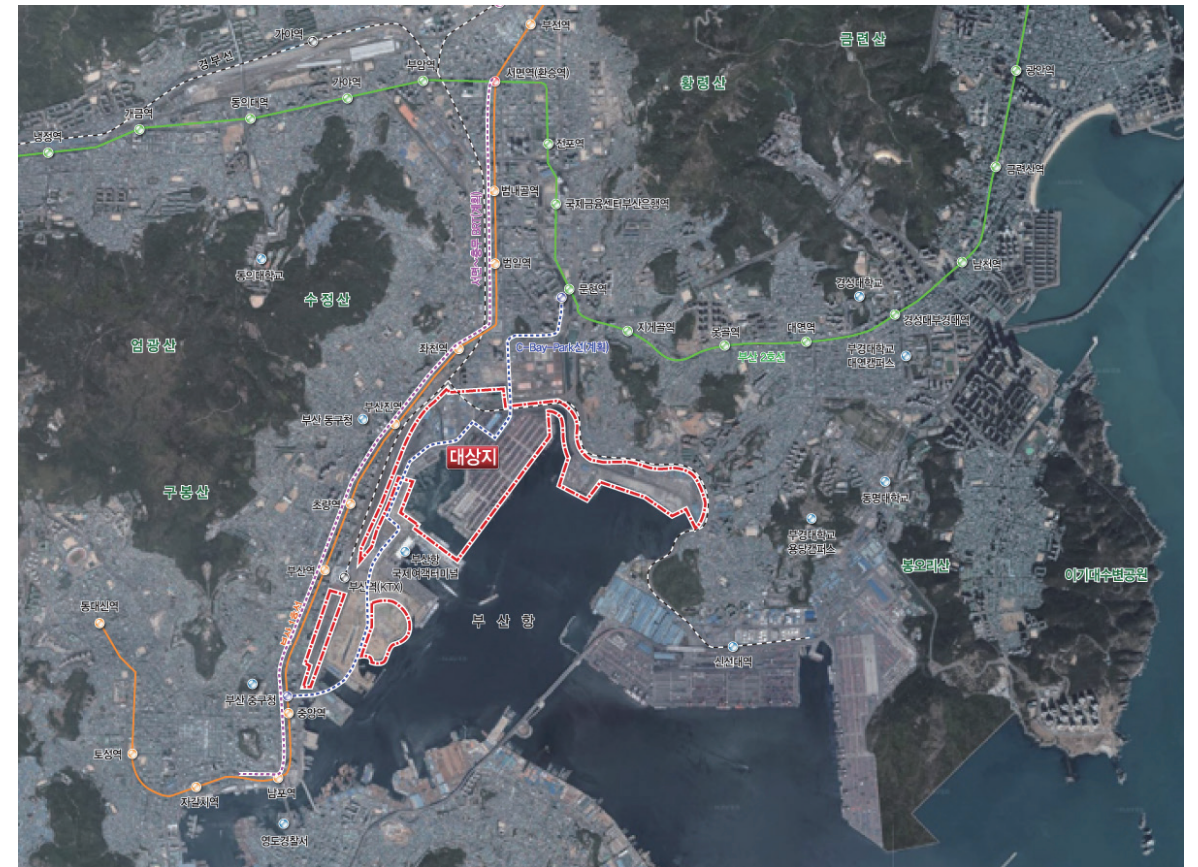
첫째, 유치 부지에 직접 접근성을 제공하는 지역교통망으로는 다양한 수단이 존재한다. 도시철도망, 시내(마을)버스 노선망 및 택시 등 다양한 수단이 기 운행 중이며, 또한 국가 전역을 연결할 수 있는 연안여객과 고속철도(HSR·High Speed Rail) KTX 터미널이 인접하여 있다.

둘째, 국제 및 국내도시 간 여객수송수단으로 항공과 해상수단이 있으며, 각각 김해국제공항, 울산공항,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과 국제크루즈 터미널 등이 인접하여 있어 국제적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 2021년 개통예정인 중앙로 BRT(Bus Rapid Transit)와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2차)안에 제시된 신교통수단 경량전철(LRT·Light Rail Transit) 노선인 송도선 및 C-Bay~Park선이 개최예정 부지에 직접적인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산은 국내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와 수단으로 구성된 양호한 교통체계를 갖고 있다. 특히 최근 등록엑스포의 교통분야 트렌드가 대중교통임을 고려하면, 유치 경쟁에서 부산의 우수한 기존 대중교통체계는 상당한 강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lt;그림 1 - 예정부지 주요 교통인프라 및 체계&gt;

유치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

언급된 장점에도 불구하고 혼잡지역에 위치한 개최예정부지와 국제 수요를 감당할 시설 및 연계노선/체계 부족으로 등록엑스포 기간 중 발생할 교통수요와 통행패턴을 감당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음도 사실이다. 해결을 위한 교통 분야에서 고려되어야 할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가장 큰 약점은 국제수요 충족을 위한 각종 인프라와 노선 부족이며, 이는 항공과 해상분야 모두가 여기에 해당된다. 김해국제공항의 경우 동아시아 직항 노선 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미미한 공항 인프라로 인

해 대규모 수요 처리에는 한계가 있으며, 양호한 인프라를 지닌 해상분야는 일본 연결 노선 위주로만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노선의 확대 및 다양화와 공항인프라 확장에 대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을 활용한 ‘seamless’한 연계교통체계에 대한 명확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수단간 연계는 지역교통수단 간 및 셔틀계획 뿐 아니라 광역 및 국가 차원의 수단들과 지역교통체계와의 종합적 연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방문객 숙박시설, 승용차 이용자, 공항, 해상터미널, 주차계획 등과도 연계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예정부지 접근 도로망은 이미 과도한 통과교통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최기간 부지 접근 교통흐름으로 인해 도시 전체 기능에 상당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대중교통연계, 외부주차계획 및 수요관리계획으로 일부 완화는 가능할 수 있으나 근원적 악영향 해소를 위한 도로망의 정비와 개선이 요구된다.

넷째, 수립된 교통처리계획과 운영/통제의 조화를 담당할 특별 조직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조직은 정부교통기구, 경찰청, 방문객, 전시회 참가자, 운영요원 및 수단이용자와의 대화와 정보교환을 통해 모든 교통 관련 운영과 통제의 책임과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현재 부산교통관리 센터를 활용한 계획도 가능할 것이며 시민단체들의 참여도 가능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부산의 강점인 해상교통을 최대한 활용해 국제 수요뿐 아니라 지역, 광역 국내 수요를 충족하는 노선 확대 계획이 필요하다. 지역 내를 연결하는 다양한 단거리 셔틀노선을 포함해 광역과 타 해안도시를 연결하는 중장거리 노선의 개발이 요구된다.



등록엑스포는 국가 및 지역 이미지 제고 및 발전과 변화의 기회이자 도시구조 변화와 업그레이드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새로 구축될 교통인프라의 대부분은 영구시설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부적절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막대한 책임도 따른다



마지막으로 여객 못지않은 방대한 교통흐름을 발생시킬 Logistics과 지원 활동(물류, 안전, 정보통신, 유지관리,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교통처리 계획도 고려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방문객의 약 30~50% 해당되는 교통량 발생이 예상되는 물류 및 지원활동은 지속기간 동안 방문객에 비해 더욱 정확히 움직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련 차량과 인력의 동선과 흐름에 대한 지속가능하고 신속성과 정시성이 확보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등록엑스포는 국가 및 지역 이미지 제고 및 발전과 변화의 기회이자 도시구조 변화와 업그레이드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구축될 교통인프라의 대부분은 영구시설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부적절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막대한 책임도 따른다. 언급하였듯이 교통은 이벤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치 경쟁의 승자를 결정하는 주요 결정요소이기 때문에, 합리적 처리방안 뿐 아니라 향후 선정될 등록엑스포 주제에 적합하고 연관된 교통 패러다임과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실사단과 회원국에 대한 설득력 있는 교통계획의 수립으로 유치전쟁의 승자가 되길 희망해본다.

## 05 |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 성공 전략과 과제



신청 도시 이해 관계자들  
의지와 열정이

###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성공의 열쇠

— 오성근 (사)2030 부산월드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 집행위원장



부산이 공들여 준비해온 2030년 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국제 경쟁 무대의 막이 곧 오른다. 유치 신청 자격이 올해부터 부여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이미 지난해 12월에 열린 167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비대면)에서 부산의 월드엑스포 유치 의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 회의에서 러시아가 같은 뜻을 밝혔기에 모스크바도 경쟁에 참여할 것이다. 이외에도 유럽과 미주 등에서 두서너 개 도시가 추가로 경쟁에 합류할 듯하다. 2020년 월드엑스포에는 두바이, 예카테린버그, 상파울루, 이스미르 4개 도시가 경쟁했고, 2025년도 개최권을 놓고는 오사카, 예카테린버그, 바쿠 3개 도시가 경쟁했다. 2030년 엑스포 개최지 결정까지 이제 3년도 채 안 남았다. 앞으로 남은 기간 전략적이고도 효과적인 준비와 유치교섭 활동을 통해 모두의 염원인 2030 월드엑스포의 부산 유치를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

1) BIE 회원국 수는 169개국이며, 대륙별로는 아시아·대양주 30개국, 미주 31개국, 구주 48개국, 중동 17개국, 아프리카 43개국임.

월드엑스포 개최지는 BIE총회에서 결정된다. 2030년 개최지는 2023년 11월 총회에서 회원국 투표로 결정될 예정이다.<sup>1)</sup> 1차 투표에서 2/3 이상

득표하여 개최권을 획득한 사례는 없었다. 첫 투표에서 다수 득표로 앞선 후보 도시가 최종 투표에서도 승리하는 형국이다. 따라서 회원국 표심을 잡는 것이 유치 성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다. 그렇다면 회원국의 표심을 잡을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일까? 두바이와 오사카의 사례 분석을 통해 그 답을 알아보고 부산의 유치 성공을 위한 당면과제와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 2020 및 2025 월드엑스포 개최지 선정 BIE 총회 투표 결과]

구분	투표참여국	후보도시	1차	2차	3차
2020년 개최지 선정(2013.11)	164개국	두바이	77	87	116
		예카테린버그	39	41	47
		이즈밀	33	36	-
		상파울러	13	-	-
2025년 개최지 선정(2018.11)	156개국	오사카	85	92	
		예카테린버그	48	61	
		바쿠	23	-	

자료: BIE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 종합

#### 두바이의 2020 엑스포 유치 성공 요인

두바이는 인구 260만 명의 아랍에미리트 두 번째 토후국이다. 연간 1,500만 명 이상의 해외 방문객이 찾는 중동의 대표적인 관광, 무역, 국제 물류 도시이기도 하다. 두바이가 엑스포 유치에 나선 이유는 글로벌 금융 위기 여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고 동시에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도시발전 전략의 일환이었다. 2020년 월드엑스포 유치 경쟁은 터키의 이스미르가 2011년 5월 초에 유치 신청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두바이는 마감을 앞둔 그해 11월에 유치 신청을 하고 뒤늦게 경쟁에 합류했다.

두바이는 예카테린버그(러시아), 이스미르(터키), 상파울루(브라질)와 유치 경쟁을 펼쳤다. 엑스포 개최 경험이 없는 비구미(非歐美)권 도시 간의 경쟁이었다. 유치 신청 이후 BIE실사단의 현장실사 등을 거쳐<sup>2)</sup> 2013년

2) BIE에 유치 신청(2011.11) 후 BIE 사무 총장 방문(2012.2), BIE 총회 리셉션 개최(2012.11), 유치계획서 제출(2012.12), BIE 실사단 방문(2013.2), 심포지움 개최(2013.3), BIE 총회 최종 프리젠테이션 및 투표(2013.11)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쳤음.



&lt;그림 1 - BIE 총회 장면&gt;



11월 154차 BIE 총회에서 <표2>에서 보는 것처럼 세 차례 투표 끝에 2020년 월드엑스포 개최지로 선정되었다.

두바이의 월드엑스포 유치 성공 요인을 분석해 보면 첫째, 주제가 매력적이었다. 두바이는 지역의 특성과 미래전략을 압축적으로 잘 표현한 주제(마음의 연결, 미래 창조: Connecting Minds, Creating the Future)와 이를 실체화하는 세 개의 소주제(Opportunity, Mobility, Sustainab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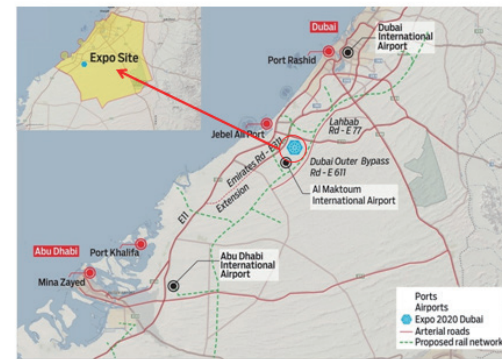
[표 2 - 2020 월드엑스포 경쟁 도시(주제 및 특기사항)]

도시	주제	특기사항
Dubai	Connecting Minds, Creating the Future	첫 도전
Ekaterinburg	The Global Mind	Moscow 도전 실패(2010-상해)
Izmir	New Routes to a Better World/Health for All	Izmir 도전 실패(2015-밀라노)
São Paulo	The Power of Diversity, Harmony for Growth	첫 도전, 월드컵(2014) 및 올림픽(2016) 유치

자료: BIE 홈페이지, Al Masah Capital Management

를 준비했다. ‘보다 나은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협력(Cooperation)과 동반(Partner)’ 그리고 ‘혁신과 진보는 사람과 아이디어가 새로운 방법으로 모여 창출해 낸 결과물’임이 주제의 의미이며 핵심 요지이다.<sup>3)</sup> 소주제는 두바이의 미래 발전전략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처럼 두바이는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 가능한 주제를 개발함으로써 차별성을 확보하고 회원국의 관심을 끌었다.

&lt;그림 2 - 두바이엑스포 개최장소 위치&gt;



다음으로 엑스포 부지의 경쟁력이다. 두바이는 수도 아부다비와 두바이의 중간지점인 Jebel Ali 지역에 엑스포 부지를 정했다. 438ha(약 133만 평) 규모의 엑스포 사이트는 인근에 알막툼 신공항과 자발 알리 항이 위치한 곳이다. 이 지역을 ‘Dubai Trade Center Jabel Ali’로 지정하여 엑스포 개최 이후 Trade Center, 전시컨벤션 시설, 호텔, 사무 지역, 대학 등이 들어서는 무역, 관광의 중심지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처럼 엑스포 부지를 전략적으로 선정하고 도시발전 전략과 연계한 사후활용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관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sup>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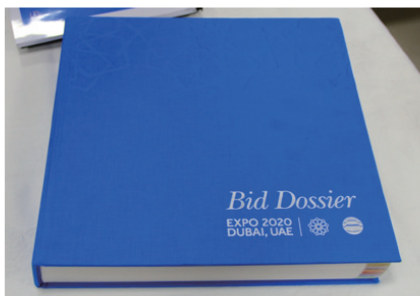
세 번째로는 강력한 추진체계를 갖추었다는 점과 국제 전문가의 노하우를 십분 활용했다는 점이다. UAE 총리 겸 두바이 통치자인 셰이크 모하메드가 엑스포 유치를 직접 챙겼다. 셰이크 아흐메드 두바이 민간항공 청장(에미레이츠 그룹 회장겸 Dubai World 회장)이 유치조직위(Higher Committee for Hosting World Expo 2020) 위원장을 맡았으며, 알 사바니 두바이 통치청장(투자청장 겸임)과 알 하시미 UAE 국제관계 장관이 각각 부위원장과 사무총장을 맡는 등 두바이 정부 핵심 인사들이 전면에서 유치를 책임졌다.<sup>5)</sup> 두바이 통치자가 진행사항을 수시로 보고 받고 직접 챙기는 등 유치 전 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한 것도 유치 성공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3) Expo 2020 Theme Guide.

4) Opportunities for Dutch Businesses & Organizations(네덜란드 대사관 보고서).

5) 유치위원회 법령에는 조직구성 내용을 포함하여 두바이 정부 및 공공기관이 위원회에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반드시 해야 할 것(3항), 위원회는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 기준에 맞는 전략적 계획을 준비하고, 인프라를 포함한 재무·기술·미디어·치안 관련 방안을 마련할 것(4항), 입무 수행에 필요한 하부 위원회 및 작업반을 설치운영 할 것(5항) 등 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이 담김.

&lt;그림 3 - 두바이엑스포 유치계획서&gt;



두바이가 짧은 준비기간에 방대한 분량의 경쟁력 있는 자료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제 전문가의 역량을 활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알 하시미 사무총장은 Gulfnews와의 인터뷰에서 2012년 12월 BIE에 유치계획서(Bid Dossier)를 제출하기 전까지 10개월간 전문팀이 집중적으로 작업을 하여 640쪽 분량의 자료를 완성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HOK(미국), Populous(미국), Thinkwell Group(미국), Arup(영국) 등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컨설팅 회사의 전문용역이 투입되었다.<sup>6)</sup>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유치교섭 활동을 들 수 있다. 회원국 순회 방문<sup>7)</sup>, 주재 외국공관장 초청행사, 외신 초청행사, 해외 주재 공관 활용 등 통상적인 활동 외에 Pan Arab Meeting(2012.3), 중국 Canton Fair(2012.4), 여수엑스포 UAE의 날 행사(2012.6), World Energy Forum(2012.10), 다보스포럼 국가 만찬(2013.1) 등 주요한 국제행사를 유효적

&lt;그림 4 - 두바이엑스포 유치 홍보 캠페인&gt;



#### Be Part of it

- ① 두바이 항만청(DP World) 본사옥외 홍보
- ② DP직원 응원 캠페인
- ③ 스포츠 행사 연계 홍보 캠페인(축구/골프)
- ④ 쇼핑몰 홍보 캠페인
- ⑤ 에미레이트 항공 sky 캠페인

6) HOK가 Mater Plan총괄, Thinkwell은 공연 및 이벤트계획, Populous는 전시관 배치계획, Arup은 인프라 및 교통계획을 담당함. 이후 HOK-Arup 컨소시움은 엑스포 Site 실시설계자로 선정됨(Arch Daily, 2013.12).

7) Menasa 지역 최초의 엑스포임을 내세워 아프리카와 중동지역 국가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유치활동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임(현지 언론 보도 종합).

&lt;그림 5 - 2020두바이월드엑스포장 전경&gt;



절하게 활용하였다. 전 세계에 60개 컨테이너터미널을 운영하는 DP World와 에미레이즈 항공, 에미레이즈 NBD(금융) 등 UAE의 6개 글로벌 기업과 Premier 파트너 협정을 맺어 이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유치홍보 활동도 병행하였고, ‘Support the Bid’라는 기업 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내외 기업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토대로 두바이가 엑스포 유치에 나서고 있음을 알렸다.<sup>8)</sup> 아울러 Cameron 영국 총리, Johnson 런던시장, Letta 이태리 총리, Clinton 전 미국 대통령, Bill Gate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등 저명인사들이 두바이를 지지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홍보 포인트로 적절히 활용하였다.

#### 2020 두바이 월드엑스포 유치 홍보 핵심 메시지

- 중동·북아프리카·남아시아(Menasa) 지역 최초의 엑스포
- 두바이 특징과 엑스포 주제(Connection과 Future) 연결
  - 200여 개 국가 출신 거주민이 연결되어 두바이의 성공을 창출, 두바이는 인적·물적 글로벌 허브
  - 젊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로 연결되는 미래 세대를 위한 혁신 플랫폼 구현<sup>9)</sup>
- 범국가적 적극적인 지지·후원·참여를 바탕으로 추진

자료: 알 하시미 사무총장 등 조직위 인사 연설·인터뷰 종합

8) BIE에 유치계획서 제출 전인 2012.10 기준 180개 국내외 기업 지지 표명(Dubai Media Inc., 2012.11).

9) 엑스포 개최와 연계해 ‘Expo Live 프로그램’이라는 미래형 프로젝트 실행을 제안. 엑스포 협력기금(1억 유로)을 조성해 엑스포 개최 이전부터 전 세계 젊은 층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자금, 전문가 등과 연결해 사업화하고 그 결과를 엑스포 기간 시연하는 프로그램.



2025오사카-칸사이  
월드엑스포 유치  
성공 요인

오사카는 아시아권에서는 처음으로 1970년 월드엑스포를 개최한 바 있다. 이때 기록한 관람객 6천 4백만 명은 2010년 상하이 엑스포에 의해 깨어지기 전까지 역대 최대 규모였을 만큼 성공을 거둔 엑스포였다. 이후 일본은 2005년 아이치에서 두 번째 월드엑스포를 개최하였고 세 번째 유치 도전을 한 것이었다.<sup>10)</sup> 1970년 오사카엑스포가 도쿄 올림픽 개최(1964년)와 연계되었던 것처럼 2020 도쿄 올림픽 유치에 이어 관서지방 중심도시인 오사카가 2025년 엑스포 유치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는 오사카부와 칸사이부의 공동 프로젝트로 추진되었다.

엑스포 부지를 오사카 시 소유의 인공섬(유메시마)으로 정했는데 협소한 부지면적<sup>11)</sup>과 교통접근성의 제약 등 물리적인 약점과 함께 이미 월드엑스포를 개최했던 지역이기에 새로운 도시에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경쟁도시의 주장 등 유치성공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표3>에서 보는 것처럼 2018년 11월 164차 BIE총회에서 예카테린버그와 바쿠를 물리치고 2025년 월드엑스포 개최권을 획득하였다.

[표 3 - 2025 월드엑스포 경쟁도시(주제 및 특기사항)]

도시	주제	특기 사항
Osaka	Designing Future Society for Our Lives	1970년 월드엑스포 개최
Ekaterinburg	Changing the World: Innovations and Better Life for Future Generations	2020년 유치 도전 실패 2010년 유치 도전 실패(모스크바)
Baku	Deveoping Human Capital, Creating a Better Future	처음 도전

자료: BIE 홈페이지

오사카의 유치 성공 요인으로는 우선 BIE 회원국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개도국 맞춤 유치전략을 효과적으로 구사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ODA)를 앞세우고<sup>12)</sup> 같은 원칙을 엑스포에 구현하겠다는 것을 유치계획서에 담고 각종 유치홍보 자료와 BIE 총회 후보국 발표<sup>13)</sup> 등에서 이를 수시로 강조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10) 2025년도 월드엑스포 유치 경쟁은 2016년 11월 파리가 유치 신청을 하면서 시작. 파리는 'Sharing our Knowledge, Caring for our Planet'을 주제로 파스칼 라미 전 WTO 사무총장을 유치조직위원장으로 임명해 유치전을 펼쳤으나 BIE 실사를 앞둔 2018년 2월에 중도 포기.  
11) 1970년 오사카 엑스포의 부지면적이 330ha임에 반해 유메시마 엑스포 부지는 150ha.  
12) 일본의 연간 ODA 규모는 93억 달러 규모(전세계 4위), 세계은행 분담금 19억 달러, 아시아개발은행 기여금 누적액 222억 달러, IMF 분담금 연 3천만 달러 등임(오사카 Bid Dossier).  
13) 2018년 11월 BI E총회 최종 후보국 발표에서 오사카에 본사를 둔 파라소닉이 30개 개도국의 외딴 마을에 태양열 전지 랜턴을 제공하여 이 지역의 미래를 새롭게 할 수 있게 했다는 지원성가를 소개.

오사카는 엑스포 유치계획서의 주요한 항목인 개도국 지원도 공격적인 전략을 구사했다. 1억 9천만 유로(약 2,400억 원)의 지원 금액을 제시하여 예카테린버그(1억 7천만 유로)와 바쿠(1억 3,600만 유로)를 앞질렀다. 개도국이 엑스포 콘텐츠 개발을 도울 수 있도록 전문가를 파견하겠다는 제안도 개도국의 호응을 얻어 낼 수 있는 요소였다. 개도국 지원 실적, 엑스포 경험과 노하우 등 일본이 보유한 장점 요인을 극대화하여 경쟁우위를 도모하였다.

<그림 6 - 오사카 엑스포 홍보 브로셔와 개도국 지원 내용>



개도국 회원국을 상대로 오사카는 적극적인 유치교섭 활동을 펼쳤다. 오사카 엑스포 유치위원회는 2018년 5월에 파리 사무소를 설치하고 각국 BIE 대표를 방문하여 유치교섭을 했다. 파리가 아닌 브뤼셀과 런던에 소재한 개도국 대표를 최소 2회 이상 방문하여 교섭 활동을 전개하는 등 적극성을 보임으로써 개도국의 표심을 얻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7 - UNSGDs와 연계된 오사카의 엑스포 주제>



다음으로는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와 엑스포를 연계함으로써 국제 이슈를 중심으로 회원국의 공감대를 이끌었다는 점이다. ‘빛나는 삶을 위한 미래 사회 디자인’이라는 다소 모호한 엑스포 주제를 UN SDGs와 연계하여 풀어냄으로써 예카테린버그의 ‘혁신을 통한 변화’, 바쿠의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주제와 차별성을 높였다. UN지속가능개발목표는 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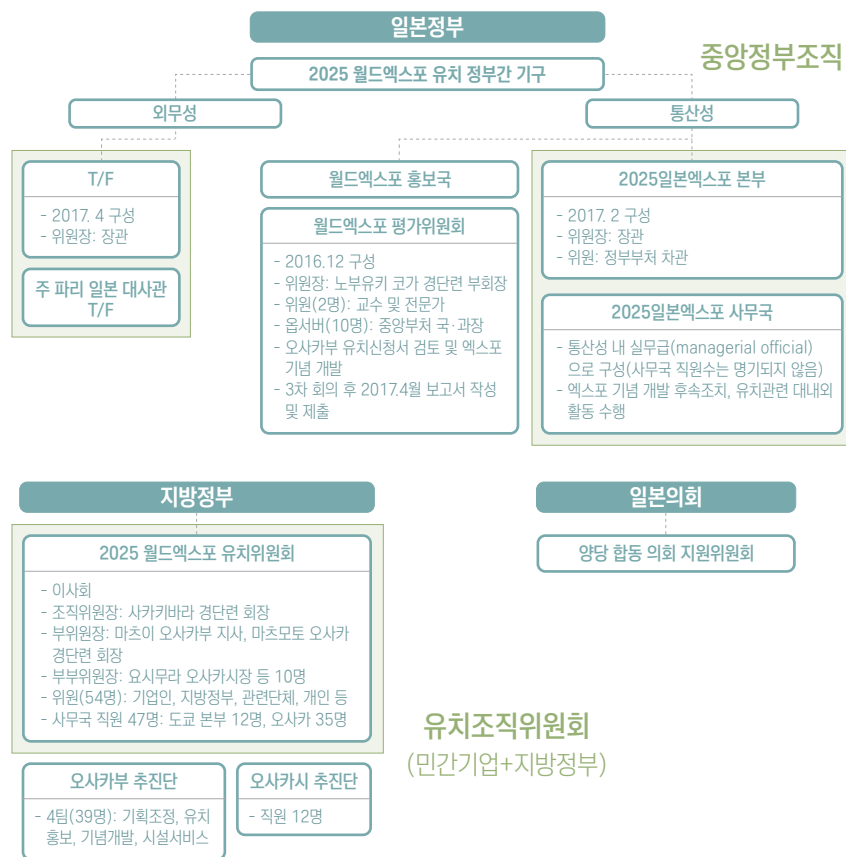
에 설정되었기 때문에 2013년에 개최지가 확정된 2020년 엑스포에서는 이를 다룰 수 없었다. 2025년 엑스포 유치에 나선 경쟁도시 중 오사카가 기회를 살려 국제적 아젠다(Agenda)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세 번째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이 하나 되어 엑스포 유치에 총



력을 기울였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는 오사카부로부터의 엑스포 유치 기본계획안<sup>14)</sup> 접수(2016.11) 후 차관급 회의를 열어 사업 타당성을 검토 하였고(2016.12), 통산성(MITI)은 심의위원회(Assestment Committee)를 구성<sup>15)</sup>하여(2016.12) 정부의 엑스포 기본계획을 준비하였다.<sup>16)</sup> 2017년 2월에는 정부추진본부(Expo 2025 Japan Headquarter)가 통산성 내에 설치되었고, 외부성에도 장관급을 책임자로 한 전담반이 설치되었다(2017.4). 정부의 유치 추진체계 구성과 함께 엑스포 유치조직위원회(2025 Japan World Expo Committee)가 2017년 3월에 발족했다. 사다유키 사카키바라 경단련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오사카부 지사(이치로 마츠이)와 간사이 경제연합회장이 공동 부위원장을 맡았으며, 유치위원은

<그림 8 - 오사카엑스포 유치조직도>



14) 오사카부는 2014년 8월부터 2025 월드엑스포 유치를 추진하여 타당성 검토 착수(2015.4), 기본계획 수립 착수(2016.6), 엑스포 유치 기본계획안 대정부 전달(2016.11) 등의 과정을 거침.

15) 29명의 상공계, 학계 인사로 구성(위원장: 경단련 부회장). 10개 부처 국과장이 옵서버로 참여. 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기본계획안 수립.

16) 엑스포 주제를 오사카부가 제안한 '인류의 건강·장수에 대한 도전'에서 '빛나는 삶을 위한 미래사회 디자인'으로 변경. 박람회장의 기본계획은 오사카부 안을 대부분 수용.

### 유치조직위원회 (민간기업+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업계의 대표 등 64명의 인사로 구성되었다. 이처럼 정부와 기업의 역할 분담 체계를 공고히 한 후 일본 정부는 2017년 4월 11일 BIE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025 오사카 엑스포의 경우 기업들이 엑스포 프로젝트의 핵심축 역할을 하고 있다. 유치조직위원장인 사카키바라 회장 등 기업인이 적극적인 유치교섭에 나섰을 뿐 아니라<sup>17)</sup> 엑스포 개최 비용도 분담하고 있다. 엑스포 부지 조성 and 건축공사 소요 비용의 1/3을 기업이 분담기로 한 것이다.<sup>18)</sup> 이러한 기업의 엑스포 주체자로서의 능동적인 참여는 일본의 엑스포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진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고 결국에는 BIE 회원국들로부터 지지를 얻어내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 이전 사례의 시사점과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 성공 전략

엑스포 유치의 성공은 프로젝트에 대한 회원국들의 평가에 달려있다. 프로젝트의 사업적 타당성과 신뢰성, 독창성과 차별성, 그리고 운영 등 기능적인 면에서의 적합성 등이 기본적인 요소이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개최지 지방정부, 기업과 지역사회 및 시민 등 주최국 이해 관계자들의 의지와 열정이 더해져야 달성 가능한 프로젝트이다.

엑스포 유치전에 뛰어든 후보 도시들은 모두 강점과 약점을 안고 있다.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서 경쟁우위 요소를 어떻게 확보해 내느냐가 관건이다. 그런 면에서 앞에 설명한 두바이와 오사카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두바이는 국제적 지위가 급부상하는 관심 도시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제적 취약점을 노출한 바 있으며, 인구가 협소하고, 대규모 글로벌 이벤트를 개최한 경험이 적고, 더욱이 엑스포 유치 경쟁에 뒤늦게 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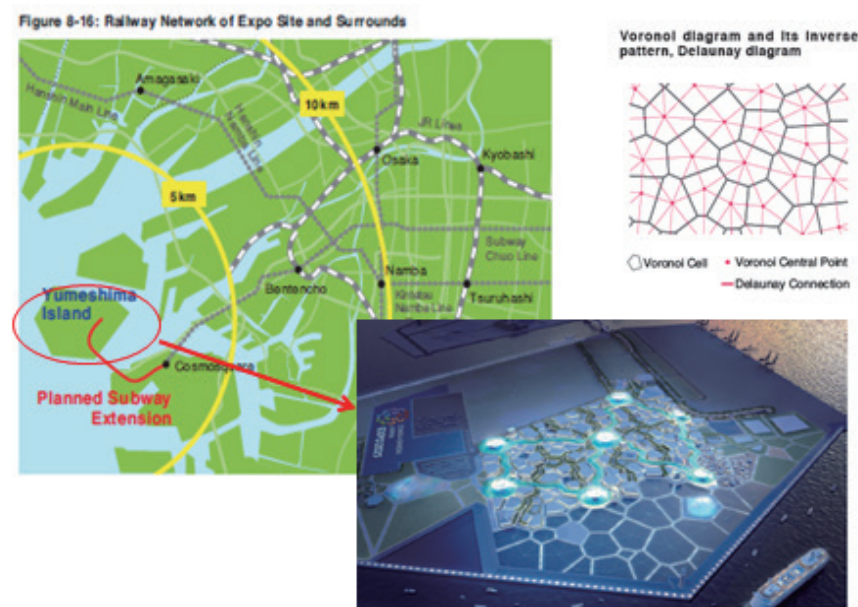
17) 사카키바라 조직위원장은 취임 직후 BIE 집행위원장(Enquiry Mission 단장)을 두 차례나 방문하여 엑스포 유치 준비사항을 미리 협의할 정도로 적극적이었음.

18) 11억3천4백만 달러를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업이 각각 3억7,800만 달러씩 분담.

여했다는 약점을 안고 있었다. 그렇지만 세계 유수의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여 유치계획을 수립해내어 전문성을 확보하였고, 스토리텔링과 비전이 겸비된 주제를 개발하여 독창성과 참신성을 입증했다. 명쾌한 홍보 메시지와 국가의 강력한 리더십을 기반으로 한 적극적인 유치홍보 및 교섭활동 등을 통하여 국제사회에 신뢰성을 얻을 수 있었다.

오사카의 경우 이미 월드엑스포를 개최한 지역이라는 약점에 대해서는 역으로 이전의 엑스포 개최 경험을 개도국 회원국들과 공유하겠다는 전략으로 전환하여 전문성을 강조하였다. 협소한 부지면적과 접근성 제약 등 엑스포 사이트의 약점을 이전의 엑스포와는 차별화된 회장구상을 제시하여 창의성을 보였고, 엑스포 주제를 UN지속가능발전목표와 연계하여 개발함으로써 독창성을 확보했다. 중앙과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이 하나 되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업계가 직접 유치활동에 나섬으로써 국제사회에 엑스포 프로젝트의 신뢰성을 심어주었다.

<그림 9 - 엑스포 부지 유메시마섬과 보로노이 다각형을 형상화 한 박람회장 구상도>



부산 엑스포 부지인 북항 일원은 과거 다른 엑스포 부지와는 또 다르다. 준비하고 있는 엑스포 주제도 글로벌 팬데믹을 겪으면서 경험하고 있는 사회적 변화와 생활 방식의 변화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요소를 전략적으로 개발하면 차별화되고 독창적인 부산 엑스포를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몇 가지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

우선은 엑스포 부지가 안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해야 한다. 수변을 끼고 있어 경관이 빼어나다는 장점이 있으나 토지 형상이 폭이 좁고 길어서 구역 배치, 전시관 군집 구상을 면밀하게 해야만 기능과 운영상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관람객의 박람회장 내 이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세부 구상에서도 창의성이 요구된다. 트램에 더하여 곤돌라 또는 케이블카 등 공중이동 수단 설치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인접 군사시설의 이전을 추진 중이지만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아서 창의적으로 엑스포 유효구역을 확장하는 방안도 동시에 강구되어야 한다.

<그림 10 - 부산엑스포 대상 부지인 북항 일원의 모습>





엑스포 부지가 도심 내에 마련되어 접근성이 양호하다는 강점이 있으나 교통 혼잡도가 가중될 우려도 있다. 각종 교통운영 대책이 마련되었지만 대중교통 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함께 검토되면 좋겠다. 일례로 2050년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한 혁신적인 교통정책을 엑스포 사이트는 물론 도심권 일대, 더 나아가 부산 전역에 도입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 정책을 엑스포에 적용하는 것은 엑스포 정신과도 일치하며 BIE와 회원국의 호감을 얻는 유용한 전략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높은 유치조직이 결성되어야 한다. 유치조직의 형태는 나라마다 상이하다. 두바이, 러시아 및 아제르바이젠 등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유치조직이 구성되었고, 일본은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이었다. 우리는 일본처럼 민간기업 중심의 엑스포 유치조직을 운영해 왔다.<sup>19)</sup> 2030 부산월드엑스포의 중앙유치조직도 기업이 중심이 되는 형태로 구성되어서 정부의 공식 외교채널과 함께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유치홍보와 교섭 활동을 해야 한다. 다만 기업의 경영환경이 이전과는 다르게 변했기 때문에 전보다는 기업의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부울경 지역 상공계의 참여 폭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엑스포는 지역사회와 시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2000년 하노버 엑스포가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서 치러져 실패 사례를 남겼다. 반면 2010년 상하이엑스포는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 덕에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공적인 엑스포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부산은 지역사회와 시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엑스포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다. 100만인 서명운동에 139만 명이 참여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고 엑스포에 대한 인지도가 초기 2.5%로 미미했으나 최근에는 55%까지 높아졌다는 것도 긍정적인 변화이다.<sup>20)</sup>

19) 2010 여수 월드엑스포 유치 경쟁은 현 대그룹에서, 2012 여수 인정엑스포 유치 경쟁은 동원그룹에서 각각 유치조직 위원장을 맡음.

하지만 유치계획서를 제출하고 BIE의 현장실사를 받는 시점에는 엑스포 유치를 향한 지역사회와 시민의 뜨거운 열정이 집약되고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야만 한다. 부산시민 모두가 엑스포를 인지하고, 엑스포가 개최되면 대다수가 엑스포를 관람할 것이며, 자원봉사자로서, 조직위 직원으로서 또는 현장의 운영요원으로서 엑스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시민의 의지가 표출되어야 한다. 이 같은 추진전략에 맞추어 엑스포 유치 성원 분위기가 단계적으로 효과 있게 조성될 수 있도록 범시민유치위원회는 ‘시민과 함께 준비하는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 범업 캠페인을 다양하게 펼칠 계획이다.

<그림 11 -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국제컨퍼런스 장면>



20) 산업연구원(2015) 및 동국대 산학협력단(2020)의 조사자료에 근거함.